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 학위논문

청년 1인 가구의 근린 내 생활 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xiety of Living in Neighborhoods of Young Single Households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권 주 안

청년 1인 가구의 근린 내 생활 불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권 주 안

권주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권 영 상 (인)

부위원장 김 세 훈 (인)

위 원 강 준 석 (인)

초 록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0-30대 청년 1인가구는 서울시 1인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가구 유형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도시와 근린에서 느끼는 불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불안은 현재 생활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더불어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요인이기 때문에 불안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장기화된 경제위기, 전염병의 확산, 사회 범죄의 증가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는 서울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안을 공간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 1인가구는 어떤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까? 다소 사회학 분야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을 근린 생활권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에 대해 특정 측면으로만 분석했으며, 근린환경의 공간적 범위 안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근린 생활권 안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하여 폭넓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생활 불안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청년 1인가구에게 질문하고,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논의하고 해석함으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서울시 내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구(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를 중심으로 각 구당 남녀 참여자로 총 10명을 모집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개별인터뷰로 근린 내에서 느끼는 생활불안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 4개의 분야에서 질의응답을 거쳤고, zoom으로 진행된 2차 그룹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토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는 개인적 차원, 주거・공간적 차원, 도시・사회적 차원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성별과 과거 독립경험 그리고 본가의 위치에 따른 부담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거・공간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좁은 면적에 의한 불안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청년 세입자로서 주거 확보의 전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도시・사회적 차원에서 생활불안은 안전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근린공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집과 근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주거면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변함이 없다. 사회변화 속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인식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주거의 질과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1인가구를 특수한 유형이 아닌 일반적 가구유형으로 인정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무조건적인 소셜믹스보다는 특정한 대상을 정한 집단 밀집 구역을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인가구는 연령이나 소득집단으로 나뉘는 것 보다 1인가구라는 특수성으로 다른 조건들은 초월하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1인가구는 집에서 누릴 수 없는 서비스를 근린

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관계망 형성, 식습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비한 도시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청년 1인가구가 초보 세입자로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청년 세입자는 부당한 경험을 하기 쉽다.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도우며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을 들여다보는 질적연구로써 생활 불안을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분류해 깊이 관찰했다. 이를 토대로 생활불안에 대해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 주거·공간적, 도시·사회적으로 스케일에 따른 해석을 거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 1인가구의 삶에서 공간에 대한 불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린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10인의 연구참여자의 자료로 청년 1인가구의 삶을 전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개개인의 조건을 다양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항목들을 토대로 추후에 양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청년 1인가구, 20-30대, 근린환경, 생활불안, 면담조사법, 질적연구방법

학 번 : 2018-24617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3 절 연구의 흐름 ·····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 6

제 1 절 선행연구 고찰 ····· 6

1. 생활불안의 정의 ····· 6

2. 청년 1인 가구의 생활불안 ····· 9

3. 근린환경과 생활불안 ····· 13

제 2 절 연구의 차별성 ····· 15

제 3 장 연구 방법 ····· 16

제 1 절 질적연구방법 ····· 16

제 2 절 연구참여자 ····· 18

1. 연구참여자의 선정 ····· 18

2. 일반적 특성 ····· 19

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 23

1. 생활불안요인 도출 ····· 23

2. 자료 수집 과정 ····· 26

3. 자료의 분석 ····· 30

제 4 장 연구 결과 ····· 31
제 1 절 생활불안의 내용 ····· 31
1. 경제성 ····· 31
2. 안전성 ····· 38
3. 편의성 ····· 46
4. 보건성 ····· 53
제 2 절 생활불안의 우선순위 논의 ····· 58
1. 생활불안의 수준 ····· 58
2. 생활불안 우선순위 ····· 63
제 3 절 공간적 관점에서의 생활불안 해석 ····· 67
1. 개인적 차원의 생활불안 ····· 68
2. 주거·공간적 차원의 생활불안 ····· 70
3. 도시·사회적 차원의 생활불안 ····· 73
제 4 절 소결 ····· 77

제 5 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 79
제 1 절 연구의 결론 ····· 79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81

참고문헌 ····· 82
Abstract ····· 86

표 목 차

<표 1> 2019년 대상지 청년 1인가구 현황 ····· 3
<표 2> 청년 1인가구 생활불안 관련 선행연구 ····· 12
<표 3> 생활불안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 23
<표 4> 본 연구의 생활불안요인 항목과 내용 ····· 25
<표 5> 자료 수집 과정 ····· 26
<표 6-1> 경제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 31
<표 6-2> 안전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 38
<표 6-3> 편의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 46
<표 6-4> 보건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 5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 5
<그림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2
<그림 3> 인터뷰 질문지 ····· 28
<그림 4> ZOOM을 활용한 포커스그룹인터뷰 화면 ····· 29
<그림 5> 공동현관이미지 ····· 40
<그림 6> 창문 앞 CCTV ····· 40
<그림 7> 원룸 건물의 구조 ····· 42
<그림 8> 참여자 B의 근린 내 불안을 유발하는 길 ····· 44
<그림 9> 참여자가 그린 집의 구조 ····· 49
<그림 10>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 51
<그림 11> 강서구 역세권 상가건물 ····· 52
<그림 12-1>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 58
<그림 12-2>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 경제활동 그룹별 ··· 59
<그림 12-3>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 점유상태별 ····· 60
<그림 13-1> 안전성 생활불안 수준 ····· 61
<그림 13-2> 안전성 생활불안 수준 : 성별 ····· 61
<그림 14> 편의성 생활불안 수준 ····· 62
<그림 15> 보건성 생활불안 수준 ····· 62
<그림 16> 경제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 64
<그림 17> 안전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 64
<그림 18> 편의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 65
<그림 19> 보건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 65
<그림 20> 생활불안 우선순위 ····· 66
<그림 21> 생활불안 해석 개념도 ·····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과 주거비 상승 등 경제적 이유로 주거 불안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적 이유 때문에도 생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에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와 같은 강력범죄가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화재, 스쿨존 교통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근린 내에서조차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지위 상승, 학업 기간의 연장, 비혼·만혼 등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과 같은 이유로 청년 1인가구가 급증하였지만,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구직의 어려움, 낮은 임금, 급변하는 사회상, 치솟는 부동산 등의 이유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 집중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청년층이 서울로 이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0-30대 청년 1인가구는 서울시 1인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청년 1인가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가구유형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도시와 근린에서 느끼는 불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안은 현재 생활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더불어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요인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 불안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1) 인구총조사(2019, KOSIS, 통계청)에 의함
2)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3].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주거 불안정(김수정, 2010; 송민종, & 최준영, 2017; 우민희, 2015;), 사회적 고립과 우울(강유진, 2019;, 노혜진, 2018;) 근린 내 범죄 불안(장재원, & 이지원, 2019; 강지현, 2017;)에 대한 측면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삶과 불안에 대해 고찰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어느 한쪽의 측면만 살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다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을 탐색해 보고 이를 도시적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의식주 중 주생활에 관련하여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삶에서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도시와 근린에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성상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주거에 필수적인 활동 혹은 내용들을 근린과 도시적 차원에서 보충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거복지이며, 다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의 근린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의 표준가구 유형인 "부모+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 중심[4]이거나,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근린 내 불안에 대해 연구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가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가족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함께 사는 3대 이상의 대가족은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다.[5] 이처럼 일반적인 가구유형에 대한 인식과 통계수치가

리학회지 문화 및사회문제, 12(1), 129-160

3) 박미석, 전지원 (2017). 비혼 1인가구의 생활불안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25-42

4) 통계청 200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는4,289,035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후 가구구성원 수가 줄어듬

3-4인가구에서 1-2인의 소형가구로 변화함에 따라 근린환경에서 느껴지는 불안요인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박미석, & 전지원(2017)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생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1인가구는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그에 따른 생활불안의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순희, & 임은정(2014)은 청년 1인가구의 삶에 조명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내면적, 실직적 문제를 진단하는 연구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경험은 기존의 다인가구의 삶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청년 1인가구는 임시적 거주자, 일시적 거주자라는 인식이 강한 계층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6]에서 이들은 더는 임시적 거주자가 아니며, 하나의 가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청년 1인가구는 근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가 근린 내에서 겪는 생활불안에 대하여 폭넓게 살피는 탐색적 연구로서, 3단계의 연구방법을 통해 구축한 청년 1인가구가 근린 내에서 겪은 생활불안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표 가구가 될 정도로 많아질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

---

5)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 김진아.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6)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7)에 따르면 2047년의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37%로 가장 많은 가구유형이 됨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7]와 통계청의 1인가구의 정의[8]에 따라 만 20세-34세 청년으로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청년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청년은 이제 막 부모에게서 독립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과 낮은 주거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연령 계층의 1인 가구보다 불안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9]로 한정하였으며,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를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2019년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
청년 1인가구	67,893가구	29,422가구	29,356가구	28,178가구	27,047가구

<표 1> 2019년 대상지 청년 1인가구 현황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활불안에 대해 정의하고, 시기별로 근린 내에서 느끼는 생활 불안에 대해 정리하고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작하고 위에서 언급한 5개 구에서 청년 1인 가구 2인을 선정해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

7) 「청년기본법」 제 3조 제 1항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8) 통계청, 1인 가구 정의 : 일반가구 중에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수,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단, 교도소, 군부대 등 특별조사구와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제외

9) 서울특별시의 2019년 청년(20-34세) 1인가구는 499,639가구로 서울시 1인가구(1,299,787가구)의 38%를 차지함 (2019 인구총조사, KOSIS, 통계청)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인터넷카페(1인가구 커뮤니티)와 해당 구의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문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근린 내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을 추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5개 구에서 청년 1인 가구 2인씩 총 10인을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해당 근린 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근린 내 불안요소를 세심히 도출하기 위함이다.

심층 인터뷰는 2020년 11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는 1:1 면접조사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이루어진 생활불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한다. 그 후 2차 인터뷰는 그룹인터뷰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인터뷰에서는 개별 면접조사에서 구축한 생활불안에 대해 공유해보고 생활불안이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밝혀진 생활불안 중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에서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을 도시적 관점에서 연구자가 해석해보고. 이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도시 및 근린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생활불안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려 한다.

제 3 절 연구의 흐름

<그림 1> 연구의 흐름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선행연구 고찰

1. 생활불안의 정의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10].를 불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불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정서적 불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불안과 유사한 단어로 불안정, 공포, 두려움 등으로 표현되지만, 각각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구연상(2002)은 그의 저서에서 공포, 두려움, 불안에 대해 근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개념을 도입해 세 기분을 정리하고 경험적 상황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저자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공포는 ‘현재’를 의미하며 그러한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불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미래’의 개념으로서 현재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 생각하는 것으로 개념을 설명하였다.

‘생활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로는 박미석, & 전지원(2017)의 연구가 유일하다. 비혼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 연구에서 생활불안과 사회적지지를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이때 생활불안에 대해 비혼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요인으로 설명하며 취업 및 소득활동, 생활안전,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과의 관계, 직장 내 갈등, 이웃과의 관계, 노후준비로 규정하였다. 최성재, & 장인협(2002)은 생활만족도는 과거

10) 불안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 분석 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

및 현재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뒤집으면 생활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 1인가구는 기존의 근린구성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계층으로,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부정적측면을 살핌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려고 한다.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 이재창(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서 “위협과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받아들임으로서 야기되는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인 주관적 감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사회불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도시공간과 관련한 불안의 연구는 범죄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물리적 환경과 범죄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범죄예방설계(CPTED)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지연, & 김기호(2011)은 도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를 대상으로 공간이용자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의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지 살펴보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위해 어떤 물리적 요소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하였다. 김선주(2020)에 따르면 인간은 주거공간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활불안은 이러한 만족도를 떨어트리며,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불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그동안 불안을 안전과 위기의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또한 정량적 연구로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생활내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폭넓게 다룬 경우는 다소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쪽 측면의 불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린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불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을 청년으로서 혼자 살아가며 근린 생활권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불안으로 불편, 불만족,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며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장기화 된 경제위기, 전염병의 확산, 사회 범죄의 증가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청년 1인 가구의 생활불안

청년 1인가구

본 연구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11]와 통계청의 1인가구의 정의[12]에 따라 만 20세-34세 청년으로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청년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1인가구에 대한 논의는 정책 대상자로서 혼자 사는 노인가구에 대해 주로 행해져 왔다. (김영란, 2014; 김서현 외, 2017; 주경희 외, 2017)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가구유형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며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13] 한국사회의 극심한 경쟁구조 속에서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중된 대도시로 원가족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형성하는는 청년세대가 1인가구 증가에 기여했다.(변미리, 2015) 청년 문제에서 강조되었던 주거와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불안, 근로빈곤, 주거점유형태, 주택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정호, 2012; 우민희, 2015; 이무선, 2016)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취업난, 과도하게 상승한 주거비용은 경제적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서 청년층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수정, 2010).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환경에 의해 조성된 비자발적 1인가구와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자발적 1인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변미리, 2015; Bennett and Dixon, 2006;). 전자의 경우 앞단에 서술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 다음의 특징

---

11) 「청년기본법」 제 3조 제 1항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2) 통계청, 1인 가구 정의 : 일반가구 중에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수,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단, 교도소, 군부대 등 특별조사구와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제외

13) 인구총조사(2019, KOSIS, 통계청)와 장래가구추계(2017, KOSIS,통계청)에 의함

을 보인다. 오늘날 청년세대는 혼자 사는 것을 사회적 실패가 아닌 성공의 요건이며 개성의 발현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Eric Klinenberg, 2012). 이들은 주로 자발적 1인가구로서 이 경우 본인의 독립된 삶을 즐기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며 이는 소비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최홍철, 김소연, 나종연 & 최현자, 2016; 임준형, 최인영 & 박혜경, 2019; 윤일섭, 2019; 김은정, 2017). 윤일섭(2019)에 따르면 최근 1인가구의 트렌드는 혼자 살기위한 저렴한 월세를 원하는 수요에서 비싸지만 개인의 주거문화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택을 원하는 수요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

선행연구 중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생활불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두려움 및 불안정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거주 안전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강유진(2019)은 1인가구 우울과 관련 요인을 연령 집단별로 비교했는데, 청년 1인 가구의 우울 수준에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유의미한 영향관계임을 밝혔다. 노혜진(2018)은 201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함께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량을 토대로 분석했다. 청년 1인가구는 모든 유형의 가구 중에서 혼자하는 시간이 가장 길게 측정되었고 이는 곧 청년 1인 가구의 삶이 혼자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서 김선주(2020)는 1인가구의 특성을 연령별로 분석하며 각 연령대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에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경상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수지가 높을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

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거주 안전 측면에서는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체 범죄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가구가 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변화하는 가구유형에 맞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정윤혜, 이유미, & 이윤재, 2016).

2012년과 2014년에 시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한 강지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신체 범죄 피해와 재산 범죄 피해, 주거 범죄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겪으며, 특히 34세 미만 여성 1인가구의 범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에 비해서 2~3배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장재원, & 이지원, 2019).

선행연구들은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환경, 신체적 건강 문제,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논의 전개 방식에서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려웠지만, 청년기반 접근 연구는 청년에 더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특성을 보인다(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는 이질성이 강하지만, 높은 고용시장의 진입장벽과 한정적인 가용자원으로 주택시장에서 지위가 불안하고, 주거수준이 취약해진다(이현정, & 김모윤, 2019).

	제목	내용
사회적 측면	강유진(2019)) 1인가구 우울과 관련 요인	청년 1인 가구의 우울수준에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관계임을 밝힘
	노혜진(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2014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함께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량을 토대로 분석. 청년 1인가구는 모든 유형의 가구 중에서 혼자하는 시간이 가장 길게 측정되었고 이는 곧 청년 1인 가구의 삶이 혼자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밝힘.
경제적 측면	김선주 (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1인가구의 각 연령대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에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경상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수지가 높을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음.
	송민종, 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이 일반 청년가구의 두 배 이상 높음. 특히 청년 1인가구는 빈곤과 더불어 주거 빈곤 및 고용 상태도 매우 중요한 생계상의 문제로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고용불안정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시사점 제시.
거주안전 측면	장재원, 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에 비해서 2~3배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임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2012년과 2014년에 시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신체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주거범죄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겪으며, 특히 34세 미만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을 밝힘

<표 2> 청년 1인가구 생활불안 관련 선행연구

3. 근린 환경에서의 생활불안

근린환경에 대한 불안은 앞서 밝혔듯이 불안, 두려움, 불만족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명확한 불안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기에 비슷한 분야의 연구들 속에서 세부요인으로 결과를 밝히는 것들을 통해 불안으로 포괄해 살폈다.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려움, 불만족등의 용어를 본 연구의 기준에 맞춰 '생활불안'으로 통일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근린환경의 생활불안에 대해 가구 중심으로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4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유형이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함께 특정 집단에 대한 근린 내 생활 불안에 다룬 연구를 함께 살펴보겠다. 2004년 조사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구주를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주변환경 안 좋음, 교통사정이 안 좋음, 편익 문화시설이 멀어서, 주차시설 부족, 소음 매연 등 공해 때문, 교육여건이 안좋음, 물가가 비쌈, 범죄가 자주 발생, 이웃이 마음에 안듦. 기타의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시점인 2004년과 가장 인접한 2005년의 인구총조사[14]를 살폈을 때, 4인 가구가 가장 많이(4,289,035가구)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4인 가구 중심의 조사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근린 환경에서의 불안은 크게 보행 측면, 주택·부동산 측면, 범죄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보행 측면에서는 주로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을 살피는 것과 보행 불안도를 확인하는 것이 다수였다. 권지훈(2017)의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인근에서 가로환경과 범죄 불안감의 관계에 대해 밝히며 범죄 불안이 조사되는 지점에서 그치지 않고, 가로와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을 확장된 공간적 범위에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부동산 측면에서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주거이동이 발생함을 설명하며, 원치 않는 주거이동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설명했다. 범죄 측면에서는 정진성, & 장응혁(2019)

14) 인구총조사(2005, KOSIS, 통계청)에 의함

의 연구에서 근린환경의 무질서와 범죄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무질서로 인해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지만, 범죄두려움으로 인해 무질서가 생성되지는 않음을 밝히며 근린환경의 무질서가 두려움을 느끼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2004년 조사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구주를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주변 환경 안 좋음, 교통 사정이 안 좋음, 편익문화시설이 멀어서, 주차시설 부족, 소음 매연 등 공해 때문, 교육여건이 안좋음, 물가가 비쌈, 범죄가 자주 발생, 이웃이 마음에 안듦. 기타의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홍영오 외(2006)은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불안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경제적 불안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요소로서 경제적 요인인 취업난(실업),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 등 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연관된 범죄의 증가를 높게 뽑았다. 권성실, & 오덕성(2004)은 환경 지속성 특면의 계획요소가 거주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살피며 우선적인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시차원의 중요도는 보행환경과 녹지환경이었으며, 주거 단지 차원에서도 녹지환경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이를 통해 거주자 관점에서 환경적 측면의 도시계획요소는 녹지환경과 보행환경임을 밝혔다.

우리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던 기존의 상식과는 달리 이제는 1-2인의 소형가구가 기본 단위가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거 근린에서의 생활불안이라고 밝혀진 요인들이 현대의 청년 1인가구에게도 적용되는 생활불안의 요인인지 살펴보고, 가감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요인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의 차별성

1절에서는 생활불안과 청년1인가구, 근린의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비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박미석, 전지원(2017)의 연구에서 생활불안이란 “비혼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요인”으로 정의하였고, 비슷한 개념으로 홍영오 외(2006)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을 청년으로서 혼자 살아가며 근린 생활권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불안으로 불편, 불만족,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경제, 안전, 편의 보건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에 대해 특정 측면으로만 분석했으며, 근린환경의 공간적 범위 안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현대사회는 장기화된 경제위기, 전염병의 확산, 사회 범죄의 증가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는 서울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안을 공간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본 연구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생활 불안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청년 1인가구에게 질문하고,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논의하고 해석함으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안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다. 다음 장에서 구축하는 생활불안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청년 1인가구에 질문하고, 구축한 자료를 도시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연구에 차별성을 두었다.

제 3장. 연구 방법

제 1절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근린 내에서 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은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로서 청년 1인 가구의 삶에서 느끼는 여러 불안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불안의 경험과 불안 요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15]. 그렇기에 청년 1인가구의 삶에 투입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는 사회현상을 구성원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처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16]. 질적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다른 세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질적연구의 면접조사 자료는 적은 수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식 속에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지식이 담겨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논리에서 봤을 때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사회 및 환경의 특성에 의해서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이라기 보다는 개별적 보편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15)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질적연구, 위키디피아 (https://ko.wikipedia.org/)

연구자는 청년 1인 가구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의 공간에서 직접 겪으며 느끼는 불안의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여 그들의 세상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심층면접법과 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앞서 표본 개수의 타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불안'을 주제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정순희, 임은정(2014)은 청년 1인가구의 삶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을 25~39세 사이로 설정하고, 이중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단독가구주 4인을 각각 2~3회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박지현(2020)은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관련 주거시설에 소개를 통해 5인을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김혜정(2015)은 비혼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8인을 심층인터뷰하여 여성 단독가구의 형성과정과 여러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선회, 최영화(2020)은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는 중장년 남성 6인을 의도적 표집 방법에 의해 선출하고 사회적 고립에 관한 탐색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심층면접은 보통 소수의 인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집단면접 같은 경우는 특정주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6~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 진다. 집단면접의 토론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동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1인가구 1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의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RB 심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사 이전에 연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 및 자료취득 과정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연구설명서를 안내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제 2절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의 선정

청년은 연구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20~34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중에서 특히 청년 계층에 주목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서울시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17]하고 있으며, 청년계층의 내부에서도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떼는 지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삶을 영위하는 첫걸음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준비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의 불안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20~34세 1인 가구를 수치화하고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관악구(67,893가구), 동작구(29,422가구), 강서구(29,356가구), 마포구(28,178가구), 광진구(27,047가구)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소수의 밀집 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청년 1인 가구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폭넓은 불안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해당 구에서 성별을 다르게 하여 2인씩 총 10인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면접조사방법의 특성을 통해 10인의 심층면접은 적합한 자료의 양인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인 가구 온라인 커뮤니티, 각 대학 커뮤니티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연구자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근린 내 생활불안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

17) 인구총조사 (2019, KOSIS, 통계청)에 의함

2.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10인으로 익명성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 A~J로 명명한다. 20세~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은 각각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다. 직업군으로 분류를 하자면, 직업활동(참여자 A, 참여자 E, 참여자 F, 참여자 H)과 시험준비(참여자 B, 참여자 G)와 취업준비 및 대학생(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I, 참여자 J)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는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참여자 A 관악구에 거주하는 32세 남성으로 대학진학을 이유로 20살에 관악구에 첫 독립한 뒤로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직장 인근으로 주거지를 선택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 익숙한 동네에 거주하고자 관악구를 선택했다. 현재 5.5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1.5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로 매달 약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수도권에 본가가 위치하고, 관악구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환경 때문에라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랜 이주생활로 인해 정착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참여자 B 관악구에 거주하는 30세 여성으로 본가가 서울에 위치하지만, 시험준비를 위해 28살에 학원 인근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현재 5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2층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주거비로 매달 약 4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인근 저층부에 술집이 많아 치안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험이 끝나면 바로 본가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첫 독립 당시 서울시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였으나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C 동작구에 거주하는 24세 남성으로 20살부터 대학진학을 위해 첫 독립을 시작하였으며 기숙사를 거쳐 현 거주지에 거주하게 되었

다. 7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3층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로 매달 약 5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끔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교 3학년생으로 본가가 비수도권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과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지출을 피하고자 본가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참여자 D 동작구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으로 23살부터 학교 앞에 독립하여 살았다. 현재 8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3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18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근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적은 편이지만, 원룸의 밀집된 구조에서 타인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나만의 안락한 공간이며 휴식을 취하는 온전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참여자 E 강서구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 채광,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면적의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경험이 있어, 현 거주지를 구할 때 가격 대비 면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현재 15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3층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자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14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참여자 F 강서구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으로 본가가 서울이지만,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의 실현과 직주근접을 위해 자발적 1인 가구를 택했다. 과거 오피스텔 거주 당시 좁은 면적과 월세 부담으로 11평의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 현재 월 35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저축을 할 여유가 생겼다.

참여자 G 마포구에 거주하는 28세 남성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이다. 원래 서울에 거주하는 친척댁에 머물렀으나, 시험준비를 시작하면서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되었다. 6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3층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다. 60만원 가량의 월세는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데, 부모님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공무원 시험준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자 H 마포구에 거주하는 29세 여성으로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었지만, 독립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되었다. 영등포에 있는 직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지는 않지만,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여 현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여자 혼자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싶지 않아서 오피스타운이나 대학 인근보다 아파트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거주지를 찾았다. 현재 7.3평의 오피스텔 12층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 52만원 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 대출 등이 부담스러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다.

참여자 I 광진구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본가인 대전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코로나 이전에 집은 잠만 자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 동아리실에서 보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밖으로 나가 동네 산책을 즐긴다. 현재 5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2층에 웰세로 거주 중이며 부모님께서 월 50만원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신다.

참여자 J 광진구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으로 수도권인 본가에서 1년간 통학을 하다가 21살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현 거주지는 LH 청년 대출 상품을 통해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7평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월 30만원 가량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졸업학기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채용시장의 변화와 아르바이트 감소로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 더해져 서울 생활을 잠시 떠나 본가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림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자치구	거주기간	주거형태	층수	평수	주거비	*월 주거지출	부담방법	직업	월소득	본가
참여자 A	남	32	관악구	34개월	다세대·다가구	1.5층	5.5평	전세 1억	30	본인	정규직	400만원 이상	인천
참여자 B	여	30	관악구	24개월	다세대·다가구	2층	5평	월세 300/40	40	부모님	시험준비	없음	서울
참여자 C	남	24	동작구	24개월	다세대·다가구	3층	7평	월세 1,000/50	55	본인, 부모님	대학생	100~200 만원	대전
참여자 D	여	26	동작구	21개월	다세대·다가구	3층	8평	전세 6,000	18	본인	대학생	100만원 미만	경기도
참여자 E	남	30	강서구	24개월	다세대·다가구	3층	15평	전세 1억9천	14	본인	시험준비, 비정규직	200~300 만원	경기도
참여자 F	여	27	강서구	9개월	아파트	2층	11평	전세 2억	35	본인	정규직	200~300 만원	서울
참여자 G	남	28	마포구	12개월	다세대·다가구	3층	6평	월세 1,000/60	63	부모님	시험준비	100~200 만원	담양
참여자 H	여	29	마포구	13개월	오피스텔	12층	7.3평	월세 3,000/45	52	본인	정규직	300~400 만원	서울
참여자 I	남	26	광진구	36개월	다세대·다가구	2층	5평	월세 500/50	50	부모님	대학생	없음	대전
참여자 J	여	25	광진구	48개월	다세대·다가구	2층	7평	반전세 8,000/17	30	본인, 부모님	대학생	100만원 미만	경기도

(*월 주거지출=관리비+이자+월세)

제 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생활불안요인 도출

생활불안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박미석, & 전지원(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 및 소득 활동, 생활안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가족과의 관계, 직장 내 갈등, 이웃과의 관계, 노후 준비, 박정은, & 김진희(2002)의 연구에서는 결혼 및 취업의 압박, 구직의 어려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생계비의 부족, 건강위기시 돌봄의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 축소, 위기 대처 어려움, 노후 불안감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	생활불안 요인
박미석, & 전지원 (2017)	취업 및 소득활동, 생활안전,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과의 관계, 직장 내 갈등, 이웃과의 관계, 노후준비
박정윤, & 김진희 (2002)	결혼 및 취업의 압박, 구직의 어려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생계비의 부족, 건강 위기시 돌봄의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 축소, 위기 대처 어려움, 노후 불안감,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 김진아 (2014)	주거비용 등 경제적 측면, 치안/방범 등 거주의 안전성,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감성적인 측면, 일상생활의 편의성(쇼핑, 세탁물처리, 고지서 납부 등), 가족이나 주변의 시선, 일상생활의 불편함-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 이사 등 주거 활동, 밥먹기, 여가활동, 문화생활, 체육 생활,
이창효, & 이승일 (2010)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주거환경평가관련 지표)

<표 3> 생활불안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세계보건기구는 1961년 주거환경의 세부 영역으로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을 선정하였고,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추가해 총 5가지 영역의 주거환경지표를 마련하였다. 이창효, & 이승일(2010)는 세계보건기구의 지표를 토대로 연구에서 근린·가구단위에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을 주거환경의 핵심세부영역으로 선정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주거환경지표와 또한 기존 생활불안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색출한 요인을 위의 항목에 적용하여 재구성한다. 청년 1인가구는 현재 취업난과 상승하는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다고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추가하여 안전성, 편리성, 보건성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생활불안의 경험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보건성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표4>와 같다.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생활불안요인을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서 청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에서는 기존의 취업·이직 등 경제생활 관련 불안, 주거비· 생활비 등 비용 관련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에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책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전성에서는 치안·방범에 관련된 안전 불안과 근린 내 환경에 대한 불안요소에 주택과 사고에 관련된 안전 불안 내용을 추가하였다. 편의성에서는 밥먹기, 여가, 문화, 체육과 같은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근린 내 시설 이용성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고, 주택 내부의 쾌적성과 직장(학교)까지의 접근성을 포함시켰다. 보건성에서는 신체적 건강, 심리·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망에 어린 나이나 부족한 경험 때문에 받는 차별에 대한 불안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의 생활불안요인	⇨	본 연구의 생활불안요인	⇨	내용
취업 및 소득 활동, 노후 준비, 취업의 압박, 구직의 어려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경제적 측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거 활동	⇨	**경제성**	⇨	● 취업·이직 등 경제생활 관련 불안 ● 주거비·생활비 등 비용 관련 불안 ● 미래에 대한 불안 + 공공정책 활용
생활안전, 위기 대처 어려움, 치안 방범 등의 거주 안전성, 안전성	⇨	**안전성**	⇨	● 치안·방범 관련 안전 ● 근린 내 환경 + 주택관련 안전 + 사고관련 안전
일상생활의 편의성, 밥 먹기, 여가, 문화, 체육생활, 편리성, 쾌적성	⇨	**편의성**	⇨	● 일상생활 편의성 (밥, 여가, 문화, 체육) ● 근린 내 시설 이용성 + 주택 내부 쾌적성 + 접근성
신체 건강, 정신건강, 이웃, 가족과의 관계, 건강 위기시 돌봄의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 축소, 응급상황대처, 보건성 결혼, 가족이나 주변의 시선	⇨	**보건성**	⇨	● 신체적 건강 ● 심리, 정신적 건강 ● 사회 관계망 + 경험, 나이로 인한 차별

<표 4> 본 연구의 생활불안요인 항목과 내용

2. 자료 수집 과정

자료의 수집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개별 심층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루어졌으며, 경제, 안전, 편의, 보건성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 개인의 삶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참여자 10인의 자료를 문서화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생활불안의 내용과 상반되게 언급하는 생활불안의 내용을 토의 주제로하여 2단계 포커스 그룹인터뷰에서 논의하였다. 3단계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활불안의 요인들에 대해 수치화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단계	방법	대상	내용 및 목적	시간
1단계	개별 심층인터뷰	참여자 10인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경제,안전, 편의, 보건에 대한 불안의 경험의 자료를 얻음	약 60분
2단계	포커스 그룹인터뷰	참여자 9인	1단계 인터뷰로부터 구축한 불안의 경험을 나누고,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에 대해 토의함	약 90분
3단계	설문조사	참여자 10인	생활불안의 요소를 점수로 수치화 해 우선순위를 도출함	-

<표 5> 자료 수집 과정

1) 1단계 : 개별 심층인터뷰

1단계 개별 심층인터뷰는 60분 정도로 청년 1인가구로서 경제, 안전, 편의, 건강의 카테고리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불안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인터뷰 전 미리 전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였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근린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으로 방문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지정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설명문[18]과 서면동의서[19]를 받았다. 민감정보수집[20]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인터뷰 과정을 녹취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녹음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근린환경에서의 생활불안 요인을 도출하였고,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불안을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크게 분류하였고, 응답에 따라 나눠지는 포괄적 항목을 추가하였다. 반 구조화 된 질문지는 다음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향후 응답에 대한 분석기준을 대략적으로 설정해 두었다.

---

18) 연구설명서에는 연구의 목적, 예상 시간과 절차, 연구참여자의 권리(인터뷰 중 원하지 않는 질문을 거절할 권리, 인터뷰 도중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등)와 개인 정보와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Creswell, 2013).

19) 서면동의서는 연구참여자가 자율적인 의사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장치로써 활용

20) 2~3차례 진행되는 인터뷰 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익명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민감 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항목 이외의 이름, 직장명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Spradley, 1980; Giordano, O'Reilly, Taylor, & Dogra, 2007).

불안요인	질문	해석차원
경제성	21. 주거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현재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다음의 지출의 %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예시 : 주거비, 필수생활비(식비,생활용품), 여가비, 저금, 기타) 22. 향후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주거비를 추가로 지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환경의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28.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 혹은 1인가구 사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수혜를 받거나 신청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인 개인,근린 도시
안전성	08.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히 고려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0. 현재 거주지는 폭행, 성희롱/성폭행, 소매치기/강도, 납치/인신매매, 주거침입절도, 주거시설손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1. 과거에 폭행, 성희롱/성폭행, 소매치기/강도, 납치/인신매매, 주거침입절도, 주거시설손괴와 같은 범죄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12.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 현 거주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13. 현재의 근린은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린의 무질서로 인해 불안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쓰레기, 전단지 / 술취해 돌아다니는사람 / 빈공터 / 깜박이는 전등 / 불법주차 / 어두운 골목 등) 14. 근린 내 불안을 느끼는 길 또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23. 현재의 주택에 대하여 불안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주인과의 불화, 좁은 면적, 사생활보호, 임대료상승, 낯선이의 침입, 통풍 환기, 배달,택배서비스 등)	개인 근린 개인 근린,도시 근린 근린 개인
편의성	16. 근린 내 본인을 위해 투자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18. 근린 내 24시 시설, 생활편의시설, 근린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없다면 불안 할 것 같습니까? 24. 혼자 살기 때문에 주택 내에서 누릴 수 없는 필수적 요소를 근린환경에서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29. 현재 본인의 근린과 주택에 만족하십니까? 30.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근린 환경의 필수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린 근린 근린,도시 개인 근린,도시
심리 보건성	01. 혼자 살면서 가족과 살 때와 가장 좋은 점과 힘든점은 무엇입니까? 19. 다른 지역의 근린 환경과 비교했을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차이를 느꼈습니까? 25. 코로나 유행 이후 혼자 살면서 더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더 불안과 우울을 느끼낀다고 생각하십니까? 26. 혼자 살면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7. 근린 내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모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 부모님, 친구, 동료와 갈등은 없습니까? 연락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개인 도시 개인 개인 개인 개인
포괄	02. 본가는 어디입니까? 가족과 살 때의 근린환경과 현재의 근린환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03. 본인에게 도시에서 느끼는 불안은 재해, 교통사고, 범죄, 화재, 고독사(외로움), 경제력 중에서 무엇입니까? 04. 현재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05. 본인이 청년으로서 도시에 혼자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06.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거비 / 접근성 / 안전성 / 교육환경 / 친구, 가족 등의 거주 / 익숙한 동네) 09. 향후 이사계획이 있으십니까? 동네를 떠난다면 현 거주지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 도시 개인 도시 근린 도시

<그림 3> 인터뷰 질문지

2) 2단계 : 포커스 그룹 인터뷰

2단계는 포커스그룹인터뷰로 2020년 11월 28일에 진행하였고, 그룹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기에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그룹인터뷰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를 진행한 10인 중 시간이 관계상 불참을 알려온 1인을 제외하고 9인의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개별인터뷰에서 밝힌 불안요소들을 정리하여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연구참여자들이 답변과 토의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zoom 인터뷰 시작 후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ZOOM 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지만, 1인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채팅방을 활용하였고, 채팅방에 올라온 의견은 연구자가 대신 읽음으로써 의견 교환을 도왔다.

<그림 4> ZOOM을 활용한 포커스그룹인터뷰 화면 캡쳐

3) 3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3단계 온라인 설문조사는 2차 그룹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룹인터뷰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의 생활불안 항목들을 1~5점 척도의 불안 정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인터뷰의 녹음을 여러 차례 들으며 문서로 만들었다. 문서화 과정을 거친 자료는 내용에 따라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에 맞춰 1차로 분류해 정렬하였다. 그 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류해 2차 정리를 하였다. 또한 자료의 내용을 공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별도로 선출해 연구자의 관점과 더불어 해석하였다.

제 4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1차 인터뷰를 통해 들여다본 개개인의 생활불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본 연구의 주 목적인 공간적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제 1절 생활불안의 내용

연구참여자의 1차 인터뷰는 앞서 말한대로 경제, 안전, 편의, 보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포괄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따라 각 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당 요인들을 뽑았다.

1. 경제성

청년 1인가구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히던 경제적 불안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구하고자 질문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색출했다.

경제성	
주택	주거비 부담, 주거비 회수에 대한 불안
미래	미래 거주지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이직, 안정성, 취업)
정책수혜	공공정책 절차에 대한 불안
	공공정책 수혜의 부정함

<표 6-1> 경제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주거비부담

주거비 부담은 대체로 느끼고 있었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참여자보다 월세 거주 참여자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세로 거주하는 한 참여자는 월세로 거주할 당시에는 저축할 여유가 없었는데, 전세로 옮긴 뒤 저축을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더 좋은 거주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 “지금은 훨씬 덜 느껴요, 그때 오피스텔 살 때는 월세가 매달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사니까 좀 없어졌고... 아, 저도 월세 살 때는 저축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저금을 시작했고.. 이 전에 월세에 살 때는 저금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나마 전세로 옮긴 후에 조금이라도 저금을 시작했어요. 전세로 안 왔다면 계속 저금도 못 하고, 주거비로 나갔을 거예요. 저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미래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F)

> “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거기 월세가 80인가 그랬었거든요.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좁고 안 좋은데... 그때는 또 학생이다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완전 …차이가 워낙 나니깐…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그리고 그때는 취업 전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낼 충분히 낼 수 있죠.” (참여자 E)

또한 주거비 회수에 대한 불안도 상당했는데,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 1인가구는 전세금, 보증금과 같은 큰돈을 구하기 위해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가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많아 더욱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지어 주거비 회수의 불안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집주인 할머니가 전세금 잘 돌려줄지 이런 걱정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반지하도 같은 건물에서 살았었는데, 전에 월세 살 때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35만원인가? 했었는데 보증금 천만원을 방 뺄 때 바로 안 주는 거예요.. 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불안하니까 따로 각서 같은 것도 받아두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달 있다가 받긴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임대업 하시는 분이라 건물 3채인데 저당도 많이 잡혀있고... 다음 세입자가 와야지 줄 수 있는 구조라서… 전세로 바꿀 때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천만원이 아니라 1억인데 그걸 제때 잘 돌려주실까…저 다음으로는 월세로 바뀔 것 같기도 해서 더 불안하긴 하죠." (참여자 A)

"사실 여기 구할 때도 전세로 그냥 대출을 받고 전세를 할까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신혼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나와서 사는 건데,,. 대출까지 해서 사실 전세 사기도 많은데 굉장히 약간 위험해 보이는 거에요,,, 물론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금액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세이브가 되는데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못 돌려받으면 제가 일을 해서 갚아야 하니까…그래서.,,, 그냥 리스크를 줄이고, 월세로 살자 이래서 전세를 안 봤어요. 사실 원한다고 해도 잘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참여자 H)

공무원 등 시험공부를 하는 그룹의 경우 부모님이 주거비를 지원해 주지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

>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 진짜로,,, 부모님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공부하는데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부모님과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 ”공부하러 나오면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거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내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사실 나이도 있고,,, 도움을 받는다는 게 선뜻 받아지지도 않고, 사실 부모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반지하에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거주 해 본적도 있어요. 주거비 아끼려고....” (참여자 B)

미래 주거에 대한 불안

치솟는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주거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것을 또한 거주지에 대한 정착을 방해하고, 임시거주자라는 인식을 주고있었다.

> "다른 욕심보다도 집 욕심이 제일 컸는데, 그 이유가 20살부터 계속 혼자 나와살고, 이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서 정착해서 큰집에서 사는것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어요, 자동차 이런 욕심보다도 집에 대한 욕심이 워낙 커서,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높기도 하고 이제돈벌기 시작했는데, 언제 모으나 싶기도 하고,,,,주변 집값 올라갈 때 보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A)

> "미래 거주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끝나면 과연 또 전세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되게 좀 막막함이 되게 크고요, 대출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블안이 크고... 실제로 아마 청년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내가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 집 하나를 마련을 해야 할 텐데, 그걸 마련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여자 D)

주거비 상승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계약 만료 후 현 조건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본가가 서울이 아닌 청년들은 주거비를 줄여 '지옥고[21]'로 일컫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서울에 부모님 댁이 있는 경우 본가로 회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본가의 위치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데 차이를 나타냈다.

21)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신조어

청년 주거 정책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알고는 있었으나,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사업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활용이 가장 활발했다. 이는 다른 청년 주거정책의 문턱이 높으며,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LH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게 제가 집을 구할 때 어려웠던 점은 LH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신청부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해서 나온 그 제품 상품인데, 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운이 좋게 잘 구했지만. 알아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도움을 주는 상품이라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 주인들 쪽에서는 지원금을 받아도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는 주택 가격으로 내놓더라구요. 옛날에는 옛날에 제 언니나 이때가 그거를 구할 때만 해도 그 상품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데 있는건되게 싼데 되게 안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집도 많은데 사실, 지원 받는거랑 안받는거랑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 (참여자 J)

또한 청년주거정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거나 아예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이 쌓여 이제는 찾아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곤 하였다.

"청년 정책은 좋다고 생각하고 신청도 많이 했죠.… 근데 되기가 너무 어려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너무 많고, 된다고 생각하고 넣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항상" (참여자 B)

"음,,,,,약간 디딤돌 전세대출인가? 근데 뭔가 저한테는 조금 해당 안 되는 게 많은 느낌이라서..... 어 뭔가 그런게 들리면 확인을 해 보긴 하는데,,, 뭔가 조건이 해당이 안 될 때가 많고..... 아니면 무슨 주택 올라와도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데 사는게 중요한데, 그게 뭐 멀거나 이러면은 또 해당

이 안되니까,,,” (참여자 F)

“ 열심히 살아왔는데 서울에 집 한 채 못산다는 게 너무 좌절스럽고,.... 청약도 금수저 백수한테만 너무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열심히 살아서 직장을 겨우 가지면 소득수준 높다고 청약 안 되고, 근데 부모님이 돈 많아서 백수면 소득이 적다고 청약되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참여자 A)

“LH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막 청년 프랜들리 하진 않더라구요. 몇 번 시도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게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조건이 안되더라고요. 사실 똑같이 일하는 거고, 저도 일할 의지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안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허탈했죠.” (참여자 G)

2. 안전성

안전에 대한 견해는 남녀의 차이가 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남성도 근린 환경 내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근린 분위기로부터 오는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우 초기에 주거지를 설정할 때 안전한 근린 환경을 추구하는데 그 이후로는 환경에 적응하여 안전 불감 증세를 보인다. 또한 주거유형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항목은 4가지 항목 중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안전성	
치안, 방법	안전불감증, 성별 차이
	주변 환경에 따른 차이
	시설물 유무에 따른 불안
근린 및 주택	번화가, 유흥가에 대한 불안
	화재에 대한 불안
	근린 내 불안구간
사고	교통사고의 불안
	범죄의 전이 불안

<표 6-2> 안전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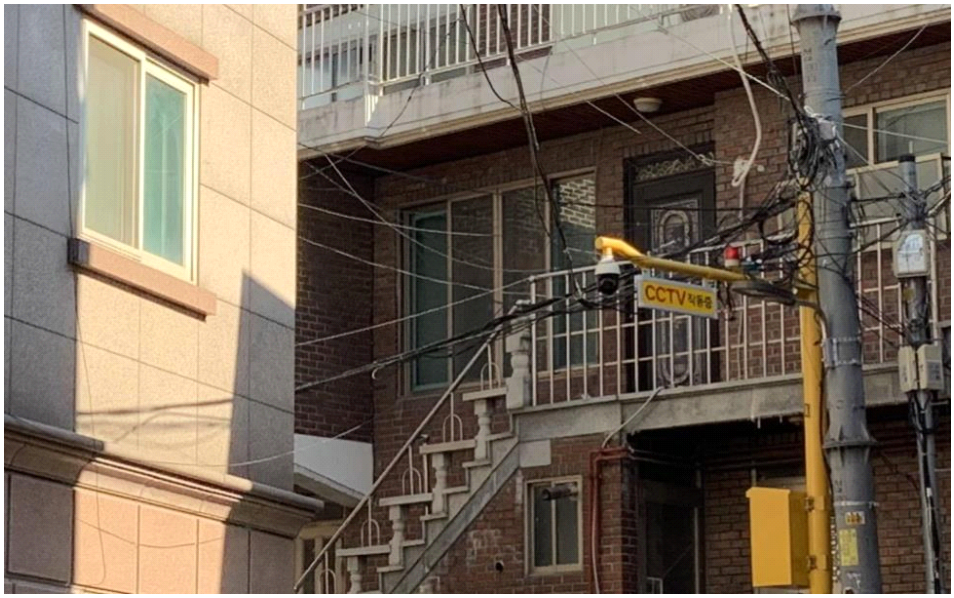
치안 중시

치안 자체를 주거지 선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여성뿐이었다. 남성은 주거지 선정 단계에서 치안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자라면,' '남자라서'라는 단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근린환경 자체에서 안전이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림5, 6>의 공동현관, CCTV와 같은 시설물을 통해 안전함을 느낀다.

> " 저는 치안을 제일 많이 봤어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구했고, 그래서 조용하고, 아파트 단지 있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의 동네를 골랐어요. 제가 오피스텔 제일 먼저 구할 때 제일 약간 두려웠던 게, 그 오피스 성매매? 그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데를 일부러 잘못 말을 해 줘서 이상한 남자가 문자 드리고…. 여기가 성매매하는 그 호실인 줄 알고…. 그런 뉴스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런데 많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는 그건 별로 없어 보이는 분위기라서…." (참여자 H)

> "여기 앞에 CCTV가 엄청나게 큰 것이 하나 있어요〈그림5〉. 그게 저도 불편하게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안전을 위해 그냥 제 불편을 감수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하얀 커튼을 항상 쳐 놓고 잤어요. 이게 좀 제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양날의 검이에요. 또 동네가 좀 으슥한 골목인지 아닌지 이런 안전성 위주로 부모님도 집을 보시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좋아요. 제가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연못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정겨운 모습을 보면서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J)

<그림 5> 공동현관이미지 (출처: 태양스피드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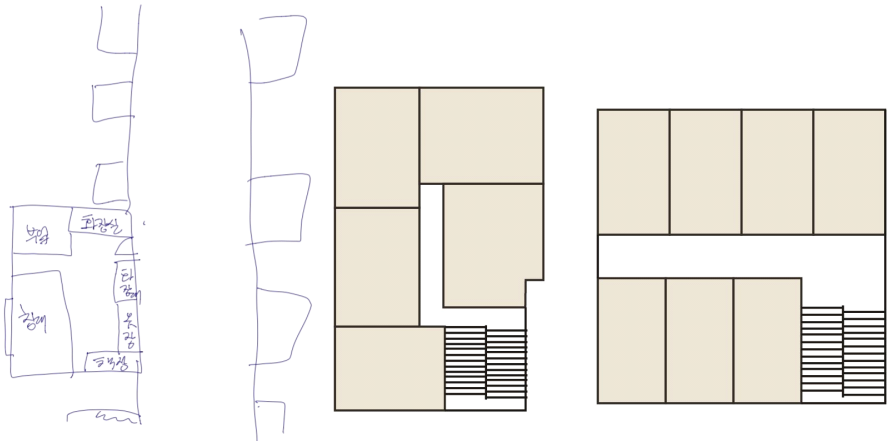
<그림 6> 창문 앞 CCTV

참여자 H의 경우 가족단위 거주지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가족단위 거주지에 주택을 구했다. 1인가구는 표적이 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가족단위 거주지에서는 그런 표적으로 낙인찍힐 확률이 낮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 J의 경우에는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안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은 연못으로 인해서 모이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감시의 일환으로 사람이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많을 경우 안전함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린 및 주택에서의 불안

집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가장 많이 들은 평가는 쉼의 공간, 안식처,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으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고 말하였다.

> “네 바로 옆에서 누가 떠드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앞집 남자분들이 막 다 같이 술 먹고, 밖에서 막 떠들면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는 밤 10시인가? 그때 갑자기 밖에서 똑똑 이러는 거예요. 저 없는 척하거든요. 똑똑하면? 근데 계속 똑똑해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랫집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혹시 지금 전화 통화하고 계시냐고,,,, 근데 저 그때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이랬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그 똑똑이 갑자기 올린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걱정되기도 했던 거 같아요. 그 늦은 시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참여자 D)



<그림 7> 원룸 건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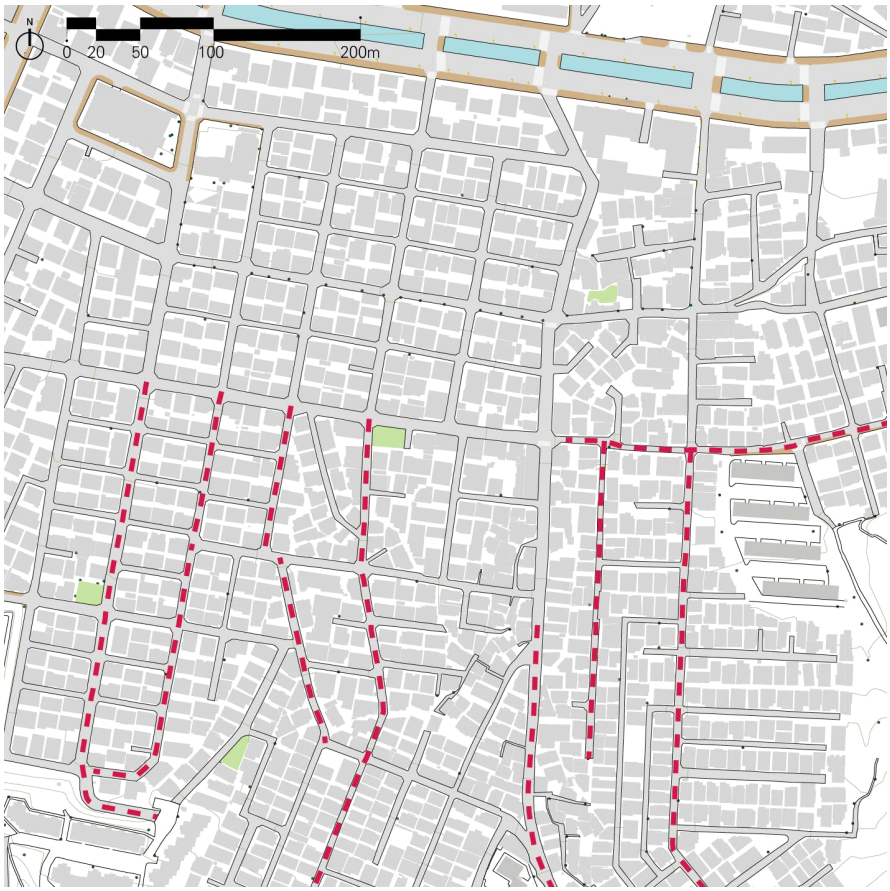
“최근에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놀러온다고, 아침 7시에 깨우러 온다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상태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닥치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어는 거에요. 진짜 누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그때 약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맨 처음에..” (참여자 C)

“최근에 2달 전인가? 12시에 혼자 자려고 누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에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남자가 표정도 약간 이상하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제가 사는 방을 호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창문만 내밀면 현관문이 보이는 1.5층 집에 살고 있긴 한데 눈 마주칠까봐 내다보질 못 하겠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한 손엔 가위를 들고 없는 척하긴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인터폰이 살짝 깨져있어서,, 그때는 조금 무섭더라구요. 차라리 경비아저씨가 상주하는 오피스텔이면 훨씬 안전할 텐데, 그런게 전혀 아닌 주거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죠, ” (참여자 A)

여성의 경우 안전을 위해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택배의 경우 남성적인 이름을 통해 수령하기도 하였다.

> “제가 여기 혼자 저는 살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편인데도 혼자 사는 여자, 이 집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부모님이 택배 보내주실 때나, 제 이름이 엄청 여자 이름 같지는 않은데도, 아빠 이름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이름 모음집, 그게 진짜 우스갯소린데 실제로 가끔 그러기도 하고, 택배나 배달도 저는 문 앞에 놓고 가시면 공동현관문 ‘짤랑’ 소리 나면 그때 문을 열고 받았어요.” (참여자 J)

또한 근린환경이 유흥가・번화가에 거주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과 간접적인 불안이 혼재되어있었다. 직접적인 불안은 주취자로 인하여 본인이 사고,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었고, 간접적인 불안은 주취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 근린의 분위기, 낯선 사람의 유입 등이 있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참여자 B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유흥가의 근린환경과 좁은 도로로 인해 무서워서 피해 가는 길을 근린의 절반가량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8> 참여자 B의 근린 내 불안을 유발하는 길

사고・범죄로부터의 불안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전이되어 거주하는 동네까지 위험해 질 것이라는 불안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구성에 따라 특정 집단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동현관의 유무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크게 달라졌다.

> "근데 비교적이라고 단서를 단 이유가 최근에 흉흉한 사건들이 신림동에서 일어났어서 사실 같은 관악구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 낙성대도 좀 위험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구로 관악구 많이 사는데 기사에 보니까 신림까지 확장했고, 설입, 낙성대까지도 많이 사는 추세다 이런 기사를 봤어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편견일 수 있는데, 저는 중국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게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참여자 A)

>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신당동 뭐 살인사건?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노끈이랑 뭐 자재 만드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동네 길거리네 시신을 유기했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골목에 살았고 집 앞에 또 자재 파는 건물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제 집이 갑자기 무서워졌고.. 그 당시에는 원룸 건물 아니라 일반 주택 건물이어서 공동현관이 없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공동현관이 없는 집을 살 때 그게 너무 무서워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던게 있었어요." (참여자 J)

주택 내부의 화재와 근린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불안을 느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오토바이가 급증하며 소음과 근린 내 보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3. 편의성

청년 1인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편의성이다. 편의성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과 근린 내시설에 대한 불안, 접근성에 대한 경험이 분석되었다.

편의성	
일상생활	식생활 관련 불안
	좁은 면적에 대한 불안
근린 내 시설	여가생활 관련 불안
	공원 및 산책로
	1인가구 밀집지역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관련 불안

<표 6-3> 편의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일상생활의 불안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 1인가구의 과반수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불안함을 내비쳤다. 혼자 사는 삶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는데, 비싸고 과도한 양, 집 안에서 음식물, 포장용기의 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1인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근린환경을 이용했다.

"일단 자취 하다 보니까 밥을 주로 다 밖에서 사 먹는데, 어 1인가구 밀집지역이 혼자 밥 먹기도 좋고, 더 저렴하고, 회사 근처가 살짝 좀 가족단위 거주지 근처에 있는데, 확실히 밥값도 더 비싸고 혼자 밥 먹을 때도 없고,, 마트 같은 것도 그냥 대형마트만 있지 편의점은 더 많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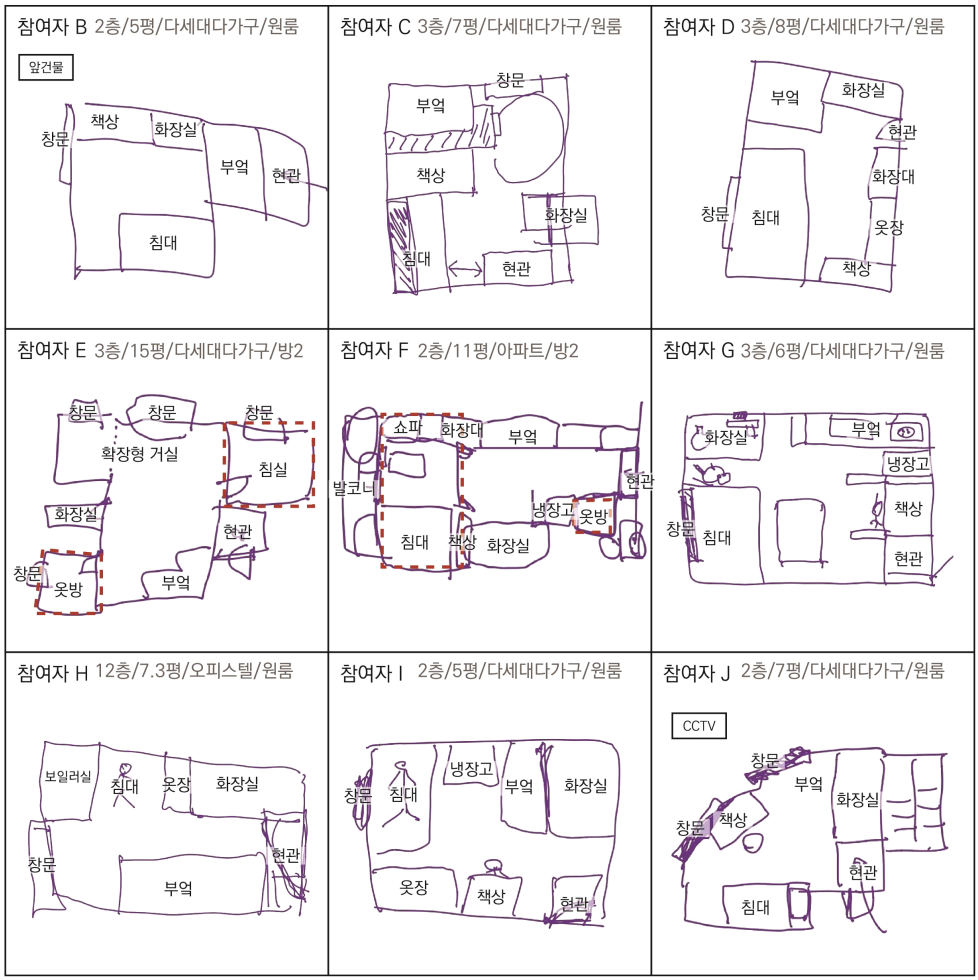
좁은 면적에 대한 불안은 집에 대해 큰 기대를 두지 않은 2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불안으로 손꼽았다. 좁은 면적은 주택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집안에서 편의를 추구할 수 없고, 오랜시간 체류시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게 된다.

"제가 집을 구할 때 단순하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넓은 곳을 중심으로 봤어요. 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진짜 너무 좁아서 5평 정도였는데, 뭐 일단 빛을 못 받으니까, 항상 어둡고 그러다보니 기분도 우울해지고,, 좁은 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은 개인적으로 그냥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와도 좁고 꿉꿉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주말에는 또 옆에서는 공사 시작한다고 주말에 공사 소리 나고 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좀 넓었으면 그런걸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으니까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 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다 좋았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공간이 없다는 점? 침대 뭐 이런 거 하면은 바닥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좁은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는 걸 느껴 가지고 이사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래된 아파트 이기는 한데, 오래돼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랑 가격은 좀 더 비슷하고 좀 더 넓어서 비슷한 가격이면 당연히 여기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소 10평은 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F)

"집이 좁다 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선 짐이 진짜 많아지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가로 택배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근거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 그리고 진짜 당연한 건데 김치 먹는게 불가능해요. 원룸에서는… 그 본가에서는 그냥 냉장고 열면 쌓여있는데 김치 잖아요. 근데 여기 원룸 같은 경우는 온 방에 냄새가 배요. 또 냉장고가 작으니까 대용량으로 살 수도 없고, 밥솥도 놓을 곳이 없으니까 햇반 사 먹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포기하게 돼요." (참여자 D)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거주면적이 좁아지고 좁아진 거주면적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 참여자 A를 제외하고 9인의 참여자에게 집의 도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림 9>는 참여자가 그려준 도면에 인터뷰를 참고해 설명을 첨부했다. 비록 스케일이 맞지 않아 실제 크기와 참여자 간 비교는 어렵지만, 스스로 그린 집에 대한 인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주공간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 F, 참여자 E, 참여자 H의 경우 거주유형이나 크기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참여자 F와 참여자 E의 경우 경제활동 이후 과거 경험으로부터 좁은면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였고 참여자 E의 경우 더 넓은 거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을 확장해 거실로 활용하고 있다. 원룸 거주자의 경우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여유공간이 부족함을 토로하였다. 최소 10평 이상은 되어야 방을 가지게 되었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원룸 거주자의 경우 좁은 면적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이사를 계획할 때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9> 참여자가 그린 집의 구조

근린 내 시설 이용

인근의 아파트단지를 공원 및 산책로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그림 10>과 같이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의 특성성이라고도 파악이 된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조경관리가 되어있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녀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에게는 매력적인 산책로로 여겨진다.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게 설정되었다.

"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산책은 여기서 안 다니고 길 건너에 아파트를 산책해요. 여가라고 할 건 딱히 없고 요즘은 취업 준비를 미리 시작해서 스터디카페 자주 가고, 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자주 가요" (참여자 C)

"공원이... 그게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 동네 산책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저 아파트 안에 가끔 산책해요.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밤에 가도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호수도 있어요. 자그마하게.." (참여자 D)

"산책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 동네를 걸어다니고, 저는 보통 동아리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기타도 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게 여가이자 하루 일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방이 문을 닫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참여자 I)

<그림 10>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그리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문화여가시설을 즐길 기회가 많아졌는데, 청년 1인가구의 수요와 그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1인가구의 목적에 맞게 편의 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을 거고? 이쪽 마곡나루 쪽만 가도 이쪽 승무원 1인가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뭐.. 맛집이라는게 이제 20대 30대 좀 취향을 저격한 식당 이라든지…. 카페나,,, 보면은 교통도 그렇고 마곡나루 쪽에서 교통도 그렇고… 그런 편의 시설이…. 편의 시설 때문에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 E)

> “여기는 일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게,, 이쪽이 또 완전 오피스텔촌이에요 여기 진짜 많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있고, 각종 학원들이 다 주변에 있고, 뭐 연습실도 있고, 이용도 해봤어요. ”(참여자 F)

<그림 11> 강서구 역세권 상가건물 (출처: 마곡동행.com)

청년 1인가구는 특히 카페 이용이 두드러졌다. 카페에 방문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공부하는 자기개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 인근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 도서관도 자주 방문하지만, 한정적 지역의 경우이다.

4. 보건성

1인가구의 위기 혹은 문제점으로 선행연구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 우울감과 심리적, 정서적 문제이다. 과연 청년세대는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청년 1인가구도 극심한 우울을 경험할까?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보건성	
신체적 건강	불규칙한 생활
	식생활에서 야기된 건강악화
심리적, 정서적 건강	외로움
	사회관계망
사회적 차별	어린나이로 인한 차별에서 오는 불안
	처음에 대한 불안

<표 6-4> 보건성 생활불안 요인 도출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불안

신체적 건강은 주로 생활패턴과 연관성이 높다. 특히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혼자 있을 경우 잘 챙겨먹지 않거나 배달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혼자살기 때문에 아파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더욱 건강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혼자 살면서 건강이 엄청나빠졌어요. 원래도 제 체질이 별로 많이 찌는 편이 아니어서 찌고 빠지고 차이가 1-2kg 였거든요? 근데 자취하고 2년차에 처음으로 4-5kg이 빠졌어요. 혼자 살면서 제가 외부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밥 먹고 그런 걸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가장 취약해져서 자기 건강을 못 챙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건강이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친구들도 보면 비슷해서 확실히 혼자 살면 건강은 안좋아지는거같아요. " (참여자 J)

"내 건강 아프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부러 다 해먹어요. 배달음식이나 사먹는거를 최소로 줄이고 웬만하면 저녁은 다 해먹거나,,, 집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참여자 H)

"아 근데 진짜 심하게 아플 때 그럴 때 좀 불안하긴 해요. 몇 달 전에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노로바이러스 걸리고 약간 한 번씩 쓰러져 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깰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더 심하게 아팠을 때 혼자 쓰러졌는데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 전화 할 정신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F)

혹은 시험공부를 하거나 생활패턴의 과도한 자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살이 쪘습니다. 15kg인가 쪘어요. 근데 패턴이 좀.... 12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랑 이것저것 하면 저녁 7시쯤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새벽 6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저녁은 7시쯤 먹고, 야식 한번 먹고 아니면은 아예 굶거나 새벽 5시 6시까지는 뜰 때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이런 6시간 정도 자고 12시에 알바 가고 수업 듣고 ... 몇달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G)

" 생각해보니까 시력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편하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생겨서,,, 혼자 살면서 불 켜는게 귀찮아져서 그냥 불 끄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통제가 되는 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죠. 안 좋은쪽으로.. 그리고 집밥을 못 먹으니까 진짜로 약간 채소가 땡길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냥 근처 운동 같은 거? 등록해서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D)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에 대한 항목은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청년 1인가구는 외부 활동이 많고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우며 인생의 전환기에서 취업, 직장, 새로운 환경 등을 준비하는 집단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사회적 교류가 많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외롭고 우울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등장으로 외부 활동의 축소로 사회적 관계망이 느슨해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낼 창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울과 외로움의 감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던 것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 "저희 동네가 놀기 좋다고 유명하긴 한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화려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심한 거 같아요. 너무 대비 돼서 .. 그냥 혼자 집 안에 들어갈 때가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거 같아요. 약간 불이 꺼져있는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엄청 공허하고 그런 느낌이 좀 심하게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사실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 같은 느낌? 아니 모르고 살았는데 깨달은 거 같은 느낌이어서…. 그…. 점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냥 내가 계속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겠구나를 많이 느껴서 그냥 무조건 산책 매일매일 거의 산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참여자 I)

> "이거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안 느낄 수 있는건 밖에 있는 시간이 꽤 많고, 할 일이 많아서 밖에서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는, 집은 완전히 쉬는 공간이 되어서 밖과 집이 균형이 맞아서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단 제 기준으로는 밥 해먹는 게 하나하나 다 일이고, 집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다보면 당연히 더 외로움이, 없던 사람들도 생기는거 같아요." (참여자 J)

반면에 1인가구 생활을 즐기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나만의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혼자 있으면서 자기개발에 힘쓸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차별

청년 1인가구는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스스로 어른아이라고 칭하며 나이는 먹었지만, 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불안하다고 전한다. 대부분은 좋은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실제로 집주인 혹은 부동산, 이사 관련 업체 등에서 청년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 고생하기도 한다.

"뭔가 나이는 성인 있긴 한데, 일단 너무 처음 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전세집 구할 때도 제가 관여한게 거의 없이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좀 약간 전세계약 뭐 이런거나 뭐 어디 가서 뭐 떼어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사하면은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되고 전입 신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직도 잘 모르는 거 같고…. 막 전입신고 아무 동사무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아무 데나 갔다가 여기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게 내가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서 좀 불안한 거? 사기먹을거같고…. 친구들도 요새 이사 많이 하는데, 부동산 만만하게 보는 거 같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더라고요.."(참여자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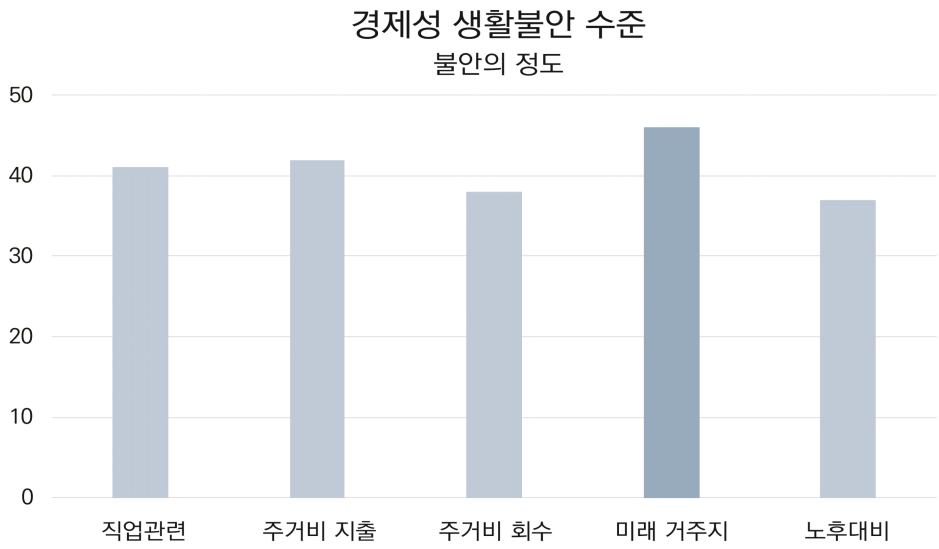
" 처음으로 첫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사하고, 퇴거 하고,,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어른들이고, 부동산 업자들도 어른 들이고, 이삿짐 해주는 사람들도 이미 엄청 어른들인데, 이사를 알아볼 때 제가 알아봤을 때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을 불렀었는데, 엄마가 알아봤을 때는 10만 원 초반 대로 바로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혼자서 부모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경제적 상황 못지않게 힘든 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 (참여자 J)

제 2절 생활불안의 우선순위 논의

1. 생활불안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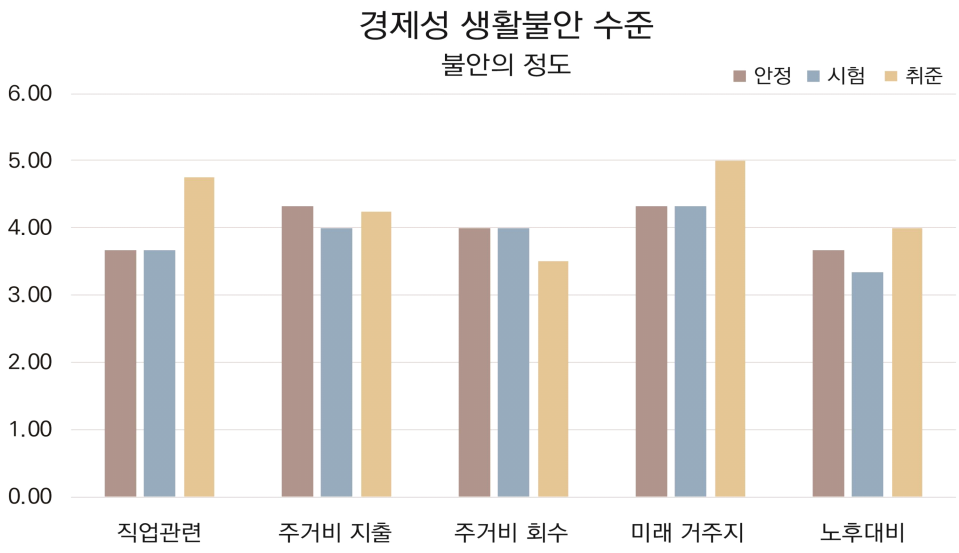
2단계 포커스그룹인터뷰와 3단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불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았다. 생활불안 수준은 각 항목당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 5점은 매우 불안하다로 설정하였다. 본 설문은 생활불안에 대해 1,2차 심층인터뷰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치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은 <그림 12-1>과 같이 미래 거주지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불안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도 크지 않은 점수차이를 보여 경제적 불안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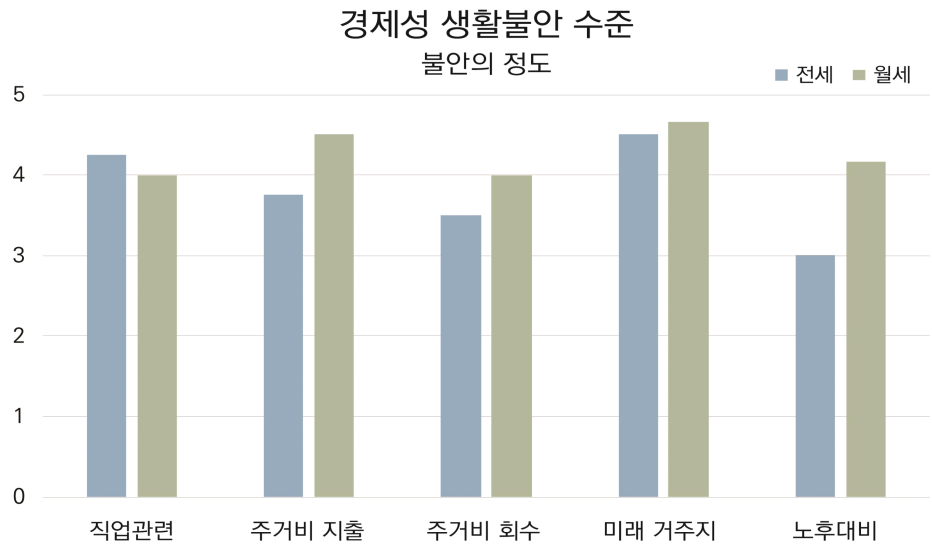
<그림 12-1>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그림12-2>와 같이 경제활동의 상황을 3개의 그룹(안정적 경제활동 그룹, 시험준비 그룹, 취업준비생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취업준비생 그룹의 불안의 수준이 대부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업에 대한 불안과 미래거주지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험준비그룹이 안정적 그룹과 비슷한 이유는 시험준비그룹의 구성원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과, 시험준비 중 부모님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거주자와 월세 거주자 중 월세 거주자의 불안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생활불안의 경우 청년 1인가구의 가장 핵심적인 불안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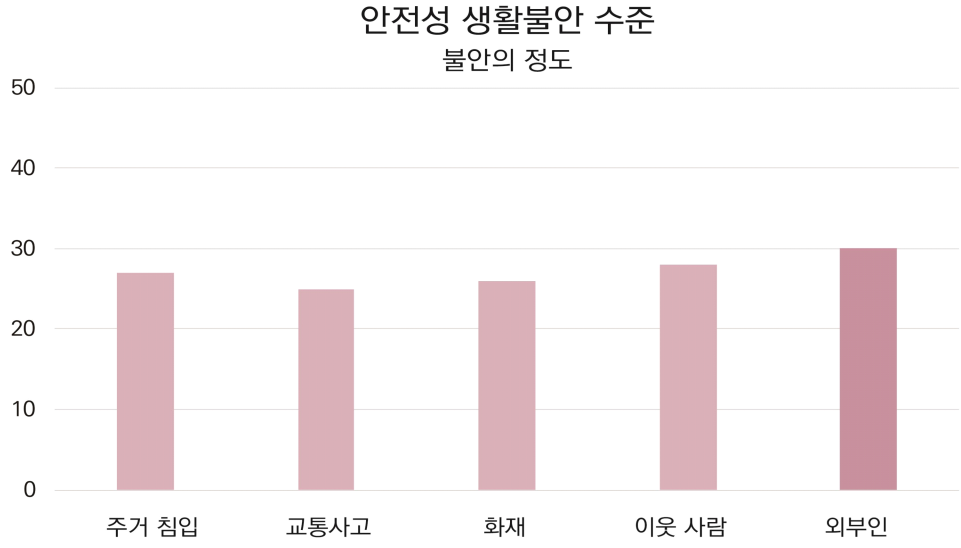
<그림 12-2>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 경제활동 그룹별

<그림 12-3>에서와 같이 전월세를 기준으로 항목 간 비교를 하면, 월세 그룹이 생활불안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비 지출과 노후에 대한 불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 달 주거비 지출 차이로 저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오는 불안의 차이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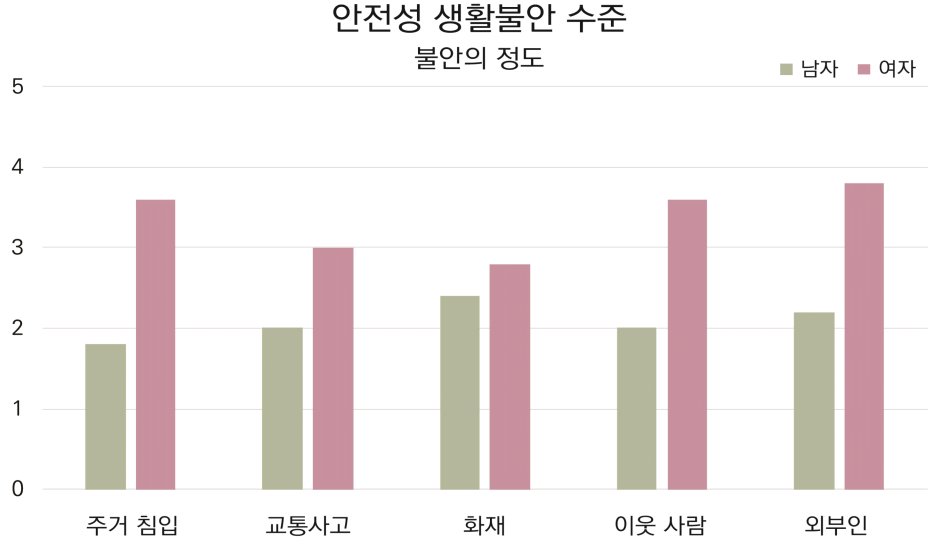


<그림 12-3> 경제성 생활불안 수준 : 점유상태별

안전성 생활불안의 수준은 경제적 생활불안 수준보다는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안전성 생활불안은 외부인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작용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안전성 생활불안 수준이 모든 항목에서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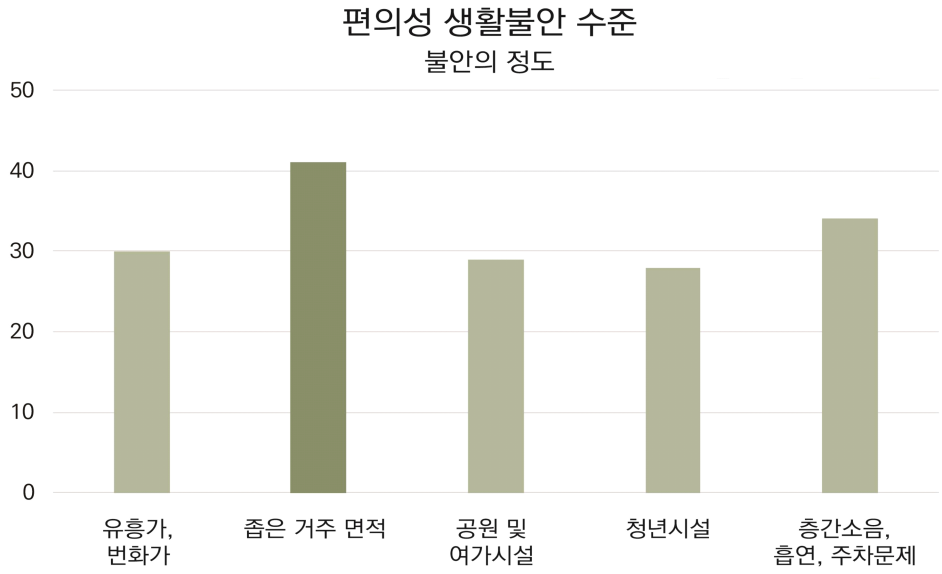


<그림 13-1> 안전성 생활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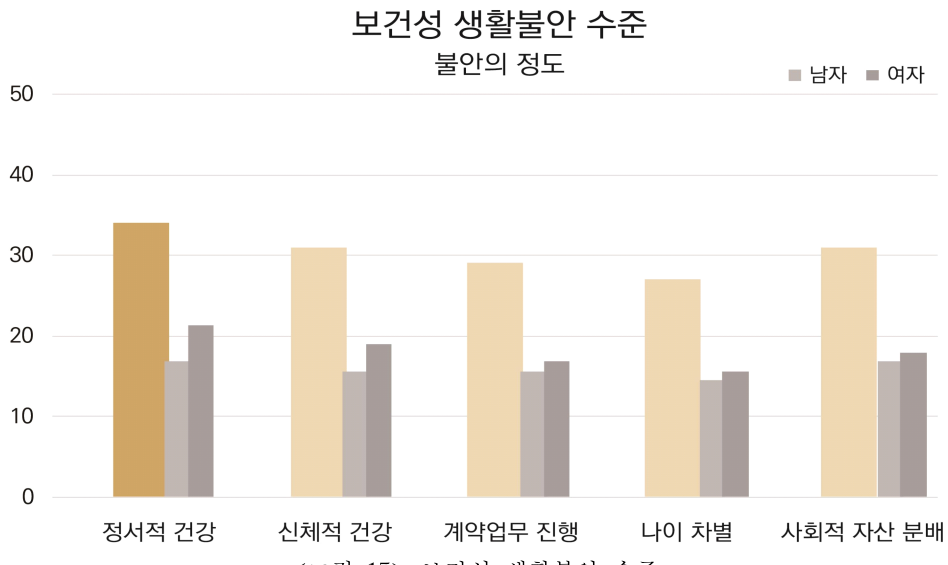


<그림 13-2> 안전성 생활불안 수준 : 성별

편의성 생활불안 수준은 좁은 거주 면적이 가장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성 생활불안수준은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14> 편의성 생활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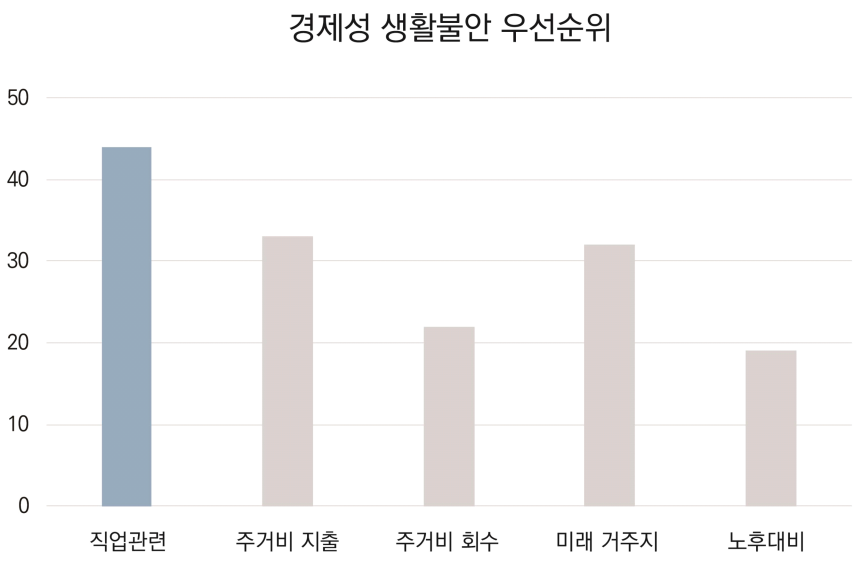


<그림 15> 보건성 생활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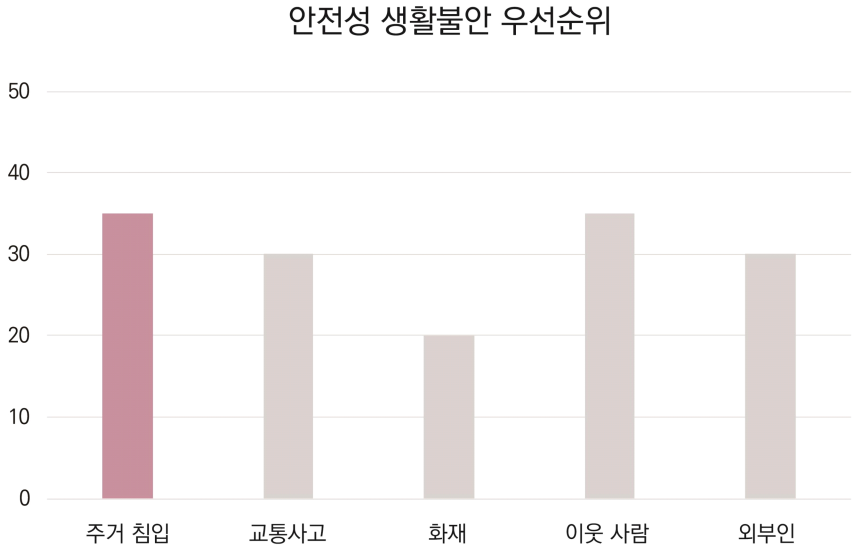
2. 생활불안 우선순위

각 항목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번을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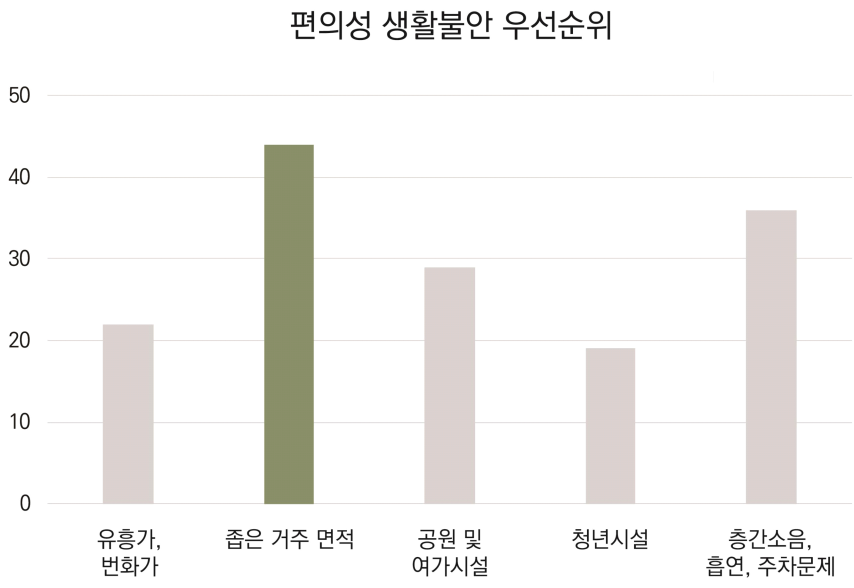
경제성은 <그림 16>과 같이 직업에 대한 불안-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불안-미래 거주지에 대한 불안-주거비 회수에 대한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 공공정책 수혜의 불평등 순으로 불안의 순위를 정했다. <그림 17>의 안전성은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과 이웃사람에 대한 불안이 동률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외부인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한 불안 순으로 정리되었다. 편의성은 <그림 18>과 같이 좁은 거주면적으로부터의 불안- 층간소음, 간접흡연의 불안- 여가시설, 공원, 산책로의 부재-유흥가・번화가로부터의 불안-청년을 위한 시설, 서비스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 포커스 그룹인터뷰 과정에서 유흥가・번화가에 대해 불안한 요소보다는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의견이 모였다. 보건성은 <그림 19>에서처럼 외로움과 건강 상태의 불안이 1순위의 결과로 나왔는데, 이는 코로나 19가 반영된 현재의 불안을 토대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사회적 자산 분배의 불평등-인생 첫 계약업무 진행시 불안-어리기 때문에 오는 차별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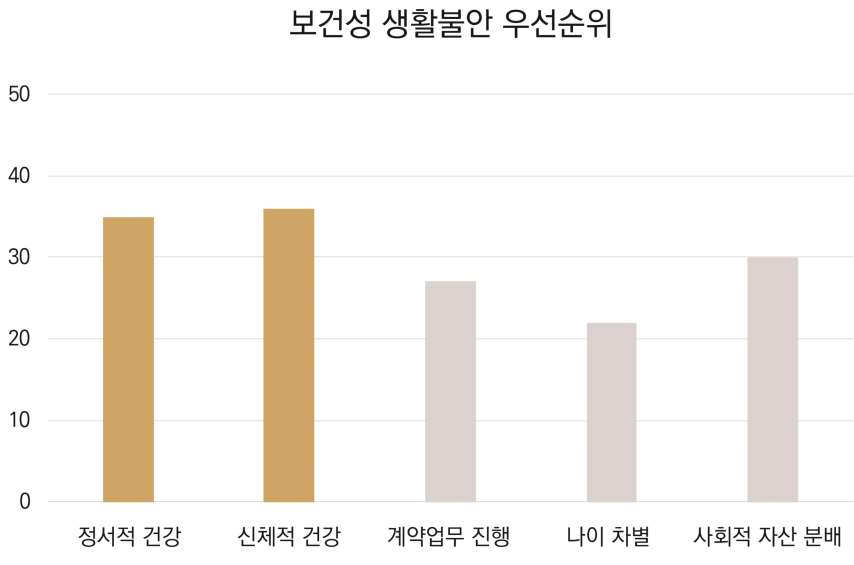
<그림 16> 경제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그림 17> 안전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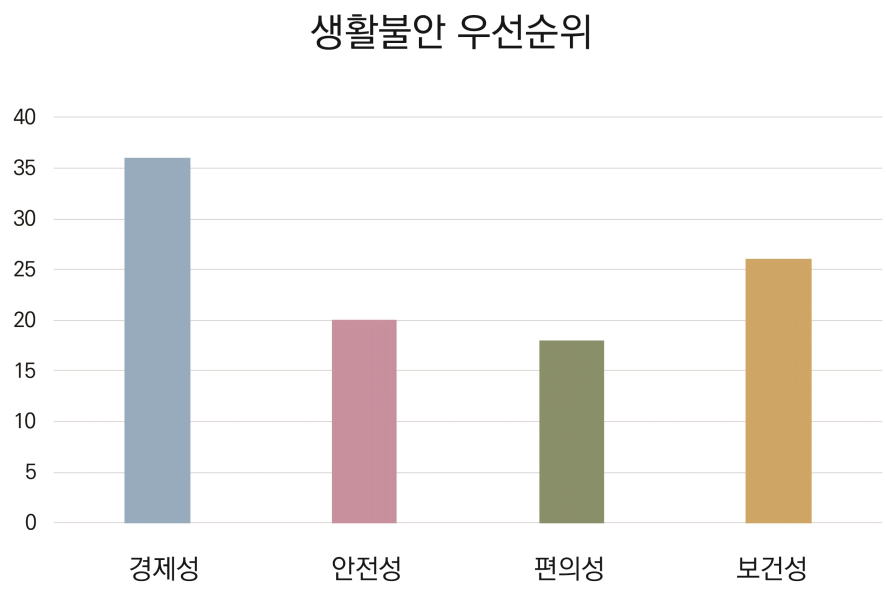


<그림 18> 편의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그림 19> 보건성 생활불안 우선순위

결과적으로 4개의 항목을 비교하자면, 경제성이 청년 1인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생활불안이고, 건강성-안전성-편의성 순으로 불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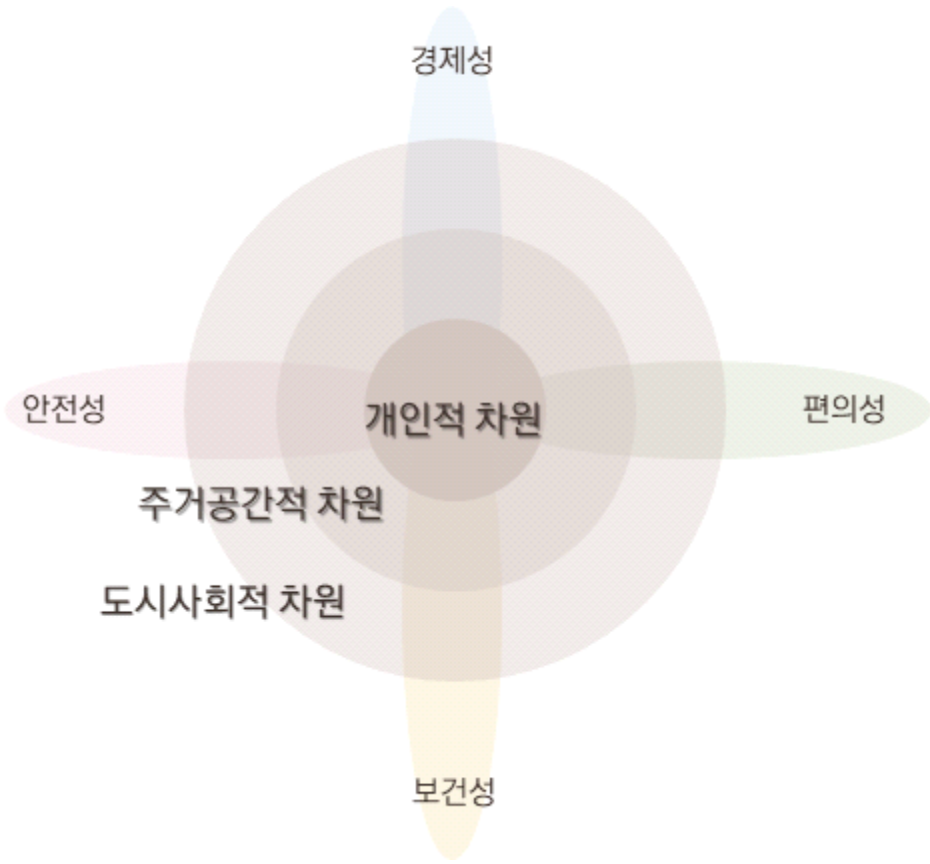


<그림 20> 생활불안 우선순위

생활불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보는 과정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의 정도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청년 1인가구의 삶에서 생활불안은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배경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청년 주거 빈곤 혹은 경제적 약자로 일컫는 부분과도 맞닿는다. 그 뒤로 보건성은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통해 개개인의 경험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외로움은 평상시엔 느끼지 못했지만, 코로나 19로 부터 야기되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제 3절 공간적 관점에서의 생활불안 해석

앞서 분석한 생활불안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 요인들에 대해 가장 작은 범주인 개인적불안, 다음단계로 확장된 개념인 주거공간적 불안, 그리고 가장 큰 개념인 도시사회적 불안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청년 1인가구의 불안을 공간적으로 배치해 근린 및 도시에서 불안을 다루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그림 21> 생활불안 해석 개념도

1. 개인적 차원의 생활불안

개인과 경험과 가치관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불안으로 가장 작은 범주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의 불안으로 개인에 따라 불안으로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성별에 따른 불안 차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개별인터뷰에서 남성들의 면접 내용이 주거침입, 인근의 소식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기저에 깔린 불안으로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남성 참여자들의 면접 분석과정에서 '남자라서 괜찮다,' '여자라면 많이 불안할 것'과 같은 문장을 자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 참여자들은 오히려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험은 겪지 않았지만, 이는 초기에 주거지 선택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 여성 참여자는 혼자 오래 살다보니 안전불감증이 생긴 것 같다면서도 문 밖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2) 과거 독립 거주 경험의 차이

독립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첫 거주지를 구할 때 가격을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주택을 골랐다. 그러나 이후의 거주지를 구할 때 과거 거주지에 대한 불안 항목을 보완하여 주거지를 찾는 경향을 보였다. 좁은 면적에서 큰 불안을 느끼던 이들은 다른 조건보다도 넓은 면적을 우선순위도 두기도 한다. 반지하 거주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비와 방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으며, 반지하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며,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형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처럼 독립해 살아본 거주 경험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도 불안했던 항목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택을 결정한다.

3) 본가의 위치에 따른 부담감 차이

서울에 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욕구에 의한 자발적 독립의 성향이 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주거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본가로의 회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는 거주환경에 대한 큰 변화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직장이 있다면, 주거비를 줄여서라도 무조건 서울의 직장 인근에 거주한다고 하였지만, 취준생은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취업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르바이트, 취업 등의 일자리 기회가 얼어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굳이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있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지방에 본가가 있는 경우 본가로의 회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본가로 돌아갈 경우 서울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없고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기회가 몰려있는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2. 주거공간적 차원의 생활불안

청년 1인가구인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좁은 집을 임시거처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나만의 온전한 공간,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1) 좁은 면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안

주거지의 좁은 면적은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작게는 5평 크게는 15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여자 E은 좁은 면적에서의 거주하던 중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밝혔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구성원별 최소 주거면적은 1인가구 기준 14m^2로 약 4.2평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5m^2, 미국은 침실 기준 11.15m^2로 선진국일수록 최소주거면적이 넓으며 삶의 질을 보장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이동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이 시점에서 주거공간은 유일한 휴식처이며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세입자의 불안

주택을 얻는 과정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매물을 찾고, 적합한 매물을 구해 집주인과 계약하게 된다. 그 후 입주해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재계약 혹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나가게 된다. 모든 과정에서 청년 1인가구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청년이라는 어린 나이로 인해 매물을 보는 과정에서도 좋은 매물보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질 나쁜 매물을 우선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공공정책을 활용해 주택을 구하려 하면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관련 서류와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포기하기에 이른다. 매물의 근저당, 화재보험 여부 등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는다. 유튜브, 전문지식 등 정보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청년들은 여기저기서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것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다. 입주한 뒤에도 불안은 계속된다, 무언가 고장 나진 않을까, 내가 낸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등등의 고민이 계속된다. 참여자 E는 이전 집에서 이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입주 때부터 있던 주택 내부의 하자를 트집 잡아 수리 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가에 많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고 불안이 증폭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미래 거주지에 대해서도 불안이 상당하다. 치솟는 전세·매매가격에 현재 거주하는 룸 컨디션보다 못한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집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물론, 청년 1인가구를 위해 경제적 지원, 안전한 분위기, 편의시설제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는 것도 필요하다.

3) 코로나19로 인한 주거공간 불안의 변화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기 전 주거공간은 그저 잠을 자는 곳, 편안함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 정도로 여겨졌다. 참여자 I는 집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펜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을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활동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일명 '집 꾸미기'에 취미를 붙이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요리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밖을 나갈 수 없음에 따라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외부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좁은 면적 안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수감자와 같은 마음이 든다.

3. 도시사회적 차원의 생활불안

1) 안전한 근린 환경에 대한 소망

청년 1인가구의 삶을 위해 근린생활권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연구참여자의 10인 모두 안전한 사회에 대한 소망을 대답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본인에게는 나쁜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성별을 떠나서 전원이 근린생활권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어 범죄의 실행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을 모았다. 참여자 J는 서울시 여성안전귀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사회분위기 자체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참여자 G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바닥조명과 같이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록 개인적 불안의 순위에서는 안전성이 높은 순위와 수준을 얻진 못하였으나, 기저에 깔린 근린 생활권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사고와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린 내에 피하고 싶거나 돌아가는 길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에 고민의 시간 없이 바로 표시하는 모습을 보아 근린환경 자체에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가 근린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

본 연구의 2차 그룹인터뷰 당시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과 가족단위의 거주지를 두고 토의를 한 주제이다.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은 편의성을 중시하느냐 안전을 중시하느냐에서 차이가 났다. 특정 집단이 집중되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근린의 상권의 재화나 서비스가 청년 1인가구를 타겟팅해 제공된다. 강서구의 마곡나루가 대표적 사례이다. 젊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마곡나루는 업무지역을 서브하는 상업지역과 1-2인의 소형 가구가 조성되어있다. 연구참여자 중 마곡나루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청년세대를 타겟으로 한 카페, 1인가구 맞춤 음식점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가를 즐길 서울식물원, 각종 원데이클레스, 교습소, 연습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1인가구 밀집지역과 직장인 1인가구 밀집지역은 또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지 중에는 학교를 포함하는 곳이 강서구를 제외한 4개 구이다. 대학 인근에 거주하는 참여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학가는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주취자가 많아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상을 보이며 번화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것이 갖춰져 있고, 교통 또한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1인가구 밀집지역을 선택하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 참여자는 가족단위 거주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안전을 뽑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사는 사람냄새 나는 동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단위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문제 중의 하나인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동일한 문화집단의 밀집은 그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여가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 1인가구와 커뮤니티

청년 1인가구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친구는 괜찮지만, 이웃은 싫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웃은 애매하게 알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청년 1인가구에 커뮤니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 G은 학생 세입자가 많은 마포구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커뮤니티 시스템을 운영한다. 커뮤니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다. 건물관리자가 함께 있는 단체카톡방을 활용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이사, 파티 등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건의사항을 말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대면하여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세대에게 비대면으로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는 근린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가령 수상한 사람이 빌라 인근에 있을 경우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알리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도 한다. 일종의 아파트 관리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세대 다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불안 중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그리고 주차문제가 거론되었다. 근린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다. 주거공간이 개인적 공간이었다면, 근린은 공유하는 공간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인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코로나19로 인한 근린 사회의 변화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 1인가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전염병의 상황이지만, 청년 1인가구의 특성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려 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머무는 시간의 증가는 좁은 주거면적의 불안이 크게 작동한다. 재택근무가 용이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참여자 A는 재택근무를 시도해보았으나, 집이 좁아 컴퓨터를 놓을 공간이 없어 늘 출근을 한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청년 1인가구는 카페라는 공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주택에서 누릴 수 없는 개방감과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 바로 카페이다. 집은 쉼의 공간이기 때문에 직주를 분리하고 싶은 마음도 작동한다. 좁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음료 한잔을 구매해 오랜시간 머무를 수 있는 카페공간은 청년 1인가구의 억눌린 욕망을 반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해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한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취업 준비중인 청년 1인 가구는 직격탄을 맞았다. 취업준비 그룹 중 1인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다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졸업을 앞둔 이들은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또한 근린 내의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다양한 시설들이 문을 닫고, 번화가의 경우는 사람이 줄어 썰렁한 모습을 보인다. 근린 내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스트레스를 풀어내던 청년 1인가구는 평소와의 차이가 다른 집단보다 크기 때문에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제 4절 소결

앞서 살펴보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항목으로 나눠둔 불안은 사실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예컨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안전에 불안을 느낄 것이며, 좁은 면적에서 신체적, 정신적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린 생활권 내에서 생활불안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며, 어느 하나로의 접근이 아닌 총체적이고 다각화된 시각으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을 하나의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해 채택한 4가지 항목으로부터 불안을 구분하였으나, 공간적 해석을 통해 재정렬하였다.

첫째, 최소주거면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처음 도입된 2000년 이후 2011년에 한 번 상향 후 10년째 변함이 없다[22]. 사회변화 속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주거의 질과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1인가구를 특수한 유형이 아닌 일반적 가구유형으로 인정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무조건적인 소셜믹스보다는 특정한 대상을 정한 집단 밀집 구역을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인가구는 연령이나 소득 집단으로 나뉘는 것 보다 1인가구라는 특수성으로 다른 조건들은 초월하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1인가구는 집에서 누릴 수 없는 서비스를 근린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관계망 형성, 식습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비한 도시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

22) 한겨레 뉴스, “13평 4인 가구? 진실공방 뒤엔…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 진명선,2020-12-14 (http://www.hani.co.kr)

셋째, 청년 1인가구가 초보 세입자로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청년 세입자는 부당한 경험을 하기 쉽다.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도우며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제 1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에 대해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삶을 고찰했다.

청년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자유로움을 무엇보다 즐기고 있다. 초반에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며 독립적인 한 가구로서 성장해가고 있다. 청년 1인가구는 좁은 주거면적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작아 근린 내에서 수혈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는 근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주거의 질 자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청년 1인가구의 특성상 외부 활동이 많고, 사회적 관계망이 두텁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외로움 전혀 느끼지 않거나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며 청년 1인가구의 삶과 공간의 활용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을 탐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자유를 누리며, 나만의 공간을 만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큰 축을 담당한다.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경제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불안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업난은 계속되고 주거비는 기하습수적으로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의 생활불안을 공간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성별과 과거 독립거주의 경험 그리고 본가의 위치에 따른 부담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개인이 느끼는 총체적 불안의 종류이며, 무형의 불안으로 정의했다.

둘째, 주거공간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주택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좁은 주거면적에 의한 불안이 가장 주요한 불안이다. 주거면적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2011년에 지정된 최소주거면적에 대한 논의를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수면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또 청년세입자로서 주거의 전 과정에서 불안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부동산 교육과 멘토링 혹은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사회적 차원의 생활불안은 근린생활권 차원과 더불어 그 이상의 공간적 범위를 지닌다. 먼저 청년 1인가구는 안전한 환경을 소망하고 있었다. 환경에 적응해 안전불감증이 올 정도로 무뎌졌지만, 무의식에 내재 된 근린에서의 불안은 안전한 근린환경을 꿈꾸게 하였다. 특히 대학가 근처는 노후화된 저층 주택이 많아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구하기 위해 안전을 내놓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이들이 불안 속에서 피폐해지지 않도록 안전한 근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적 관계망 이외에도 근린 내의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학교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의 대변동일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주거공간, 도시사회를 모두 바꿔놓았다.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 집에서 즐기는 취미 등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집을 인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근린생활권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큰 변화가 찾아왔다. 거리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배달 오토바이는 증가하였으며, 폐업한 가게와 임대 문의의 공

실은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경제침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이지만, 이미 자리 잡은 문화와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집과 근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족할 수 있는 판을 마련 해야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을 들여다보는 질적연구로써 생활 불안을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보건성으로 분류해 깊이 관찰했다. 이를 토대로 생활불안에 대해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 주거·공간적, 도시·사회적으로 스케일에 따른 해석을 거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 1인가구의 삶에서 공간에 대한 불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린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청년 1인가구가 근린에서 느끼는 삶의 불안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5개 구의 10인을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0인의 연구참여자의 자료로 청년 1인가구의 삶을 전부 파악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개인의 연구참여자의 조건을 다양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인의 연구참여자가 대표성의 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RB심사과정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향후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5개 구 이외의 대상지를 파악하고, 청년의 의견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성질, 사회적 분위기, 정책적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를 통해 질적연구가 확보하지 못한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구연상. (2002).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출판사.

Eric Klinenberg. (2012). 『Going solo』. The Penguin Group.

Groot, Devos, Schmidt, Groot, Julie De, Devos, Isabelle, and Schmidt, Ariadne. (2015). 『Single Life and the City, 1200-1900』 Edited by Julie De Groot,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Isabelle Devos, Ghent University, Belgium and Ariadne Schmidt, Leiden University,Netherlands. Print.

유주얼. (2020). 『자기만의 공간: 나를 이루는 작은 세계』. 허밍버드.

학술지

박미석, & 전지원. (2017). 비혼 1인가구의 생활불안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25-42.

정순희, & 임은정. (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구지연, & 김기호. (2011). 도시의 물리적 환경특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2(5), 59-77.

이신영. (2009).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젠더와 문화, 2(1), 125-149.

김선주. (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10(1), 39-62.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강유진. (2019). 1인가구 우울과 관련요인: 연령집단 별 비교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9(1), 1-19.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king Forwards. Joseph Rowntre Foundation.

정윤혜, 이유미, & 이윤재. (2016).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 본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6(6), 39-50.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장재원, & 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5-86.

송민종, &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0), 6-19.

권지훈. (2017). 스쿨존에서 물리적 도시 가로 환경과 청소년의 범죄 불안감의 관계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0(4), 159-173.

정진성, & 장응혁. (2019). 무질서 인식과 범죄두려움, 무엇이 원인인가?: 양 시점 종단자료를 이용한 교차지연 패널모형 분석. 경찰학연구, 19(3), 65-90.

권성실, & 오덕성. (2004). 환경적 지속성 측면의 도시계획요소가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5(3), 5-21.

이창효, & 이승일.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1(2), 69-84.

김은정. (2017). 청중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2), 45-60.

이경아. (2017). 1인 가구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48(2), 61-85.

최홍철, 김소연, 나종연, & 최현자. (2016). 20·30대 1인가구의 소비지출 양식에 관한 연구: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문화연구, 19(2). 89-110.

임준형, 최인영, & 박혜경. (2019). 라이프스타일 기반 다학제적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선호 및 요구 분석.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1), 249-260.

보고서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 김진아.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광석. (2019). 1인가구가 이끄는 경제, 소비 트렌드. KT경제경영연구소

학위논문

임준형. (2019). 라이프스타일 기반 청년층 1인가구 실내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특성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일섭. (2019).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대상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Anxiety of Living in Neighborhoods of Young Single Households

KWON Joo Ah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account for 33 percent of the total households,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20s and 30s accounting for more than 50 percent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At this point in becoming a representative type of furniture in Seoul,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hought it was necessary to look at the anxiety they felt in the city and neighborhoo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xiety factors because anxiety plays a

counter-functional role in current life and is also a potential factor that can negatively affect future life.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more complex situations than ever, including the prolonged economic crisi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crease in social crimes. In addition, it is a representative type of household that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Seoul. Against this backdrop, I thought a study was needed to interpret the anxiety tha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experience in their lives in a spatial dimension.

What anxiety do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city have? Although it may be considered to be a subject of sociology,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a spatial scope and interpret the life instabil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neighborhood from an urban perspective. Existing studies analyzed the life anxie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only in certain aspects, and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about single-person households within the spatial scope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and sought to explore the anxiety felt in the neighborhood. Thus, this study can be seen as an attempt at exploratory research that addresses anxiety about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in a comprehensive manner. Research is differentiated in promoting an in-depth understanding of life anxiety in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the present era by questioning specific factors of living anxiety to single-person households and discussing and interpreting data built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 total of 10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from each district were

recruited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around the top five districts (Gwanak-gu, Dongjak-gu, Gangseo-gu, Mapo-gu, and Gwangjin-gu) where man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lived in Seoul. The first interview was asked and answered in four areas of economic, safety, convenience, and health, which were revealed through prior research on living in the neighborhoo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the contents were discussed and consensus was formed in the second group interview. Based on the research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the researchers attempted to analyze it on a personal level, on a residential and spatial level, and on an urban and social level.

As a result, personal level living instability differed in gender, past independence experience, and the burden of the main house. Living instability at the residential and spatial level was the main cause of anxiety caused by narrow areas, and as a young tenant, he was feeling anxiety in the entire process of securing housing. On the urban and social level, living instability was an unsafe social atmosphere and neighborhood space. Finally, we could see the change in perception of home and neighborhood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following are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single-person households: First, a re-discussion of the minimum residential area is needed.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not changed for 10 years. Although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due to the prolonged stay at home amid social changes and the change in perception of living alone, the quality and standards of housing have not been prepa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single-person households as

general household types, not as special types, and to discus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single-person households.

Second, rather than unconditional social mix,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by forming a concentrated zone for specific targets.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that transcend other conditions rather than being divided into age or income groups. In particular, services to enjoy food culture and leisure life are needed. Single-person households secure services that cannot be enjoyed at home in the neighborhood, and these services can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relationship network formation and eating habits that emerge as social problems. This will be a city management measure against the grow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rd, a device is needed for a single young household to make safe transactions as a novice tenant. Young tenants are likely to experience unfairness if they engag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or have friction with tenants. Education or counseling will help self-reliance and minimize losse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that looked into the liv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it deeply observed life anxiety by classifying it as economic, safety, convenience, and health. Based on this, it is meaningful to interpret life anxiety spatially, individually, residential, spatial, urban, and socially on a scale, to understand what space anxiety is in the lives of economically and socially affect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o present the role of neighbor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entire lives of single-person young households based on the data of 10 research participants. It is also difficult to be representative because individual

conditions are not specified in various ways. To compensate for this, we hope that quantitativ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later based on the items identified in this study.

keywords : Young Single households, 20-30s, Neighborhood, Life Anxiety, Interview,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tudent Number **: 2018-24617**